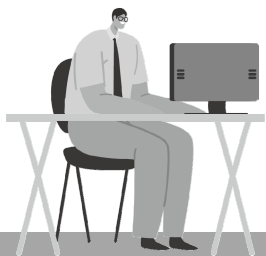


보험동향

총괄	김세중 (연구위원)
경영환경	김윤진 (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김혜란 (연구원)
보험동향	최 원 (수석연구원) 김혜란 (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101_호

[2022 봄호]

목 차

I. 경영환경

1. 경제	2
2. 금융	9
3. 자금흐름	13
4. 규제·제도	15

II. 보험동향

1. 성장성	18
2. 수익성	40
3. 리스크	49
4. 시장경쟁	56

I

경영환경

- 2021년 4/4분기 세계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 흐름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음
 -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 증가폭은 2021년 2/4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고, 세계 경기선 행지수는 2021년 4/4분기 하락세로 전환됨
- 2021년 4/4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가 경제 회복세를 견인하며 전년 동기 대비 4.2% 성장하였고, 2022년 방역조치 완화 기조와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가 지속된다면 연간 2.8~3.0%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4/4분기 민간소비는 2010년 2/4분기 이후 최고치인 6.3%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설비투자과 수출 증가율은 2021년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임
 - 한국은행과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3.0%, 2.7%로 전망함
-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됨에 따라 4월 14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함
 - 국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보임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임
 -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3.22%, 3.35%로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장단기 스프레드는 물가상승 압력,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축소됨
- 2021년 연간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래금액은 감소한 반면, 국내외 주식과 투자펀드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2021년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2020년에 기록한 역대 최저치 20.1%에서 1.0%p 상승한 21.1%로 전년도에 이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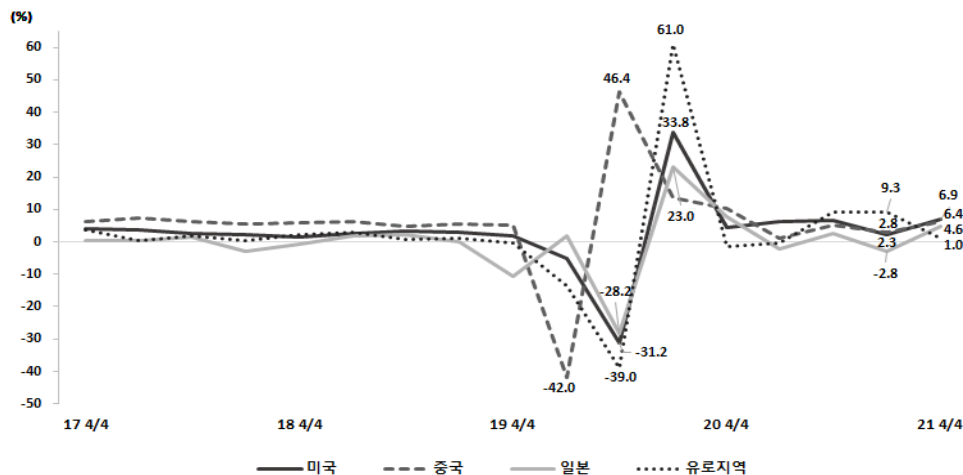
1. 경제

가. 세계경제

○ 2021년 4/4분기 세계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냄

- 2021년 4/4분기 미국 경제는 개인소비지출이 3/4분기보다 3.3% 증가함과 동시에 수출, 재고투자, 비거주 고정자산투자가 확대되며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6.9% 성장률을 보임¹⁾
- 중국 경제는 4/4분기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었으나, 제조업 및 수출 지표가 3/4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되며 전분기 대비 3.6%p 상승한 6.4% 성장률을 기록함²⁾
- 일본은 3/4분기 G7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했으나, 4/4분기 가계 소비 및 수출 증가 효과가 반영되며 전분기 대비 4.6% 성장함³⁾
- 유로지역은 4/4분기 정부지출 및 고정자본형성 등은 증가하였으나, 가계 소비지출이 줄어⁴⁾ 전분기 대비 8.3%p 감소한 1.0% 성장에 그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2. 3); 중국 국가통계국(2022. 1); 일본 내각부(2022. 3); Eurostat(2022. 3)

1)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2. 3),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Estimate), Corporate Profits, and GDP by Industry, Fourth Quarter and Year 2021"; Reuters(2022. 1), "U.S. economy likely regained steam in Q4, 2021 growth seen best in 37 years"

2) BNP PARIBAS Economic Research(2022. 1), "Eco Emerging 1st quarter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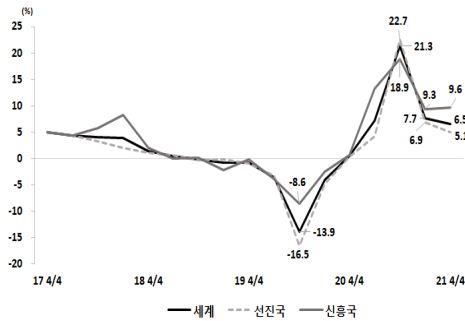
3) OECD(2022. 2), "OECD GDP growth continues steadily in the fourth quarter of 2021, but slows in Europe"

4) Eurostat(2022. 3),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fourth quarter of 2021"

○ 2021년 4/4분기 세계 무역 규모와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 4.6%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2/4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 규모 증가율은 각각 5.1%, 9.6%였으며, 선진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였고, 신흥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8%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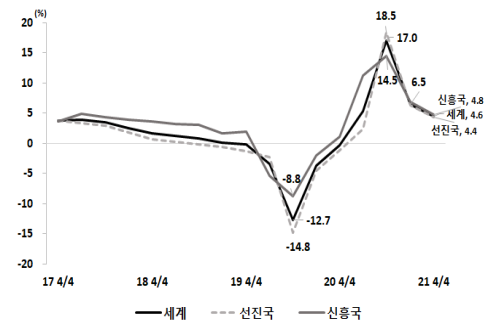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022. 3)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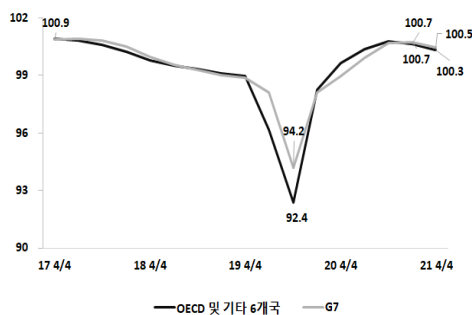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022. 3)

○ 2021년 4/4분기 세계 경기선행지수⁵⁾는 3/4분기 대비 0.4p 하락한 100.3을 기록하였고, 주요국 경기선행지수도 모두 하락함

- G7의 경기선행지수는 100.5로 지난 5분기 연속 상승 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미국, 일본, 유로지역은 전 분기 대비 각각 0.3p, 0.1p, 0.2p 하락한 100.1, 100.6, 101을 기록하였으며,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99.5로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짐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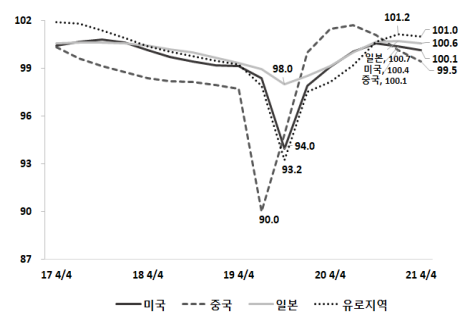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자료: OECD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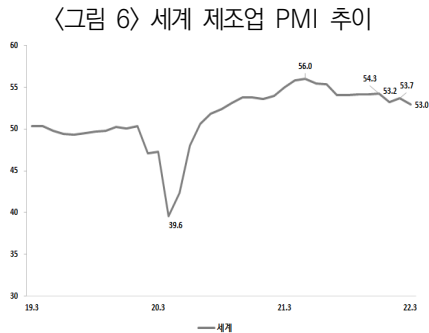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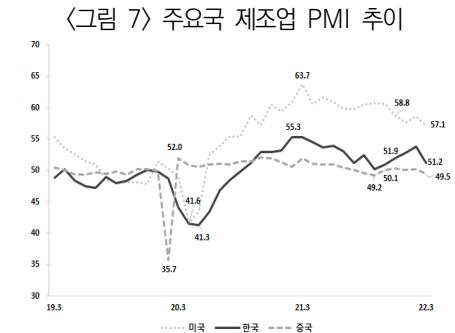
5)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 하강을 의미함

○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⁶⁾는 2021년 7월 최고치인 56.0에 도달 후 점차 하락하여 2022년 3월 53.0 수준에 머물러 있음

- 2022년 3월 미국과 한국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지난해 12월 대비 각각 1.7p, 0.7p 하락한 57.1, 51.2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제조업 PMI는 49.5로 5개월 만에 다시 50선을 하회함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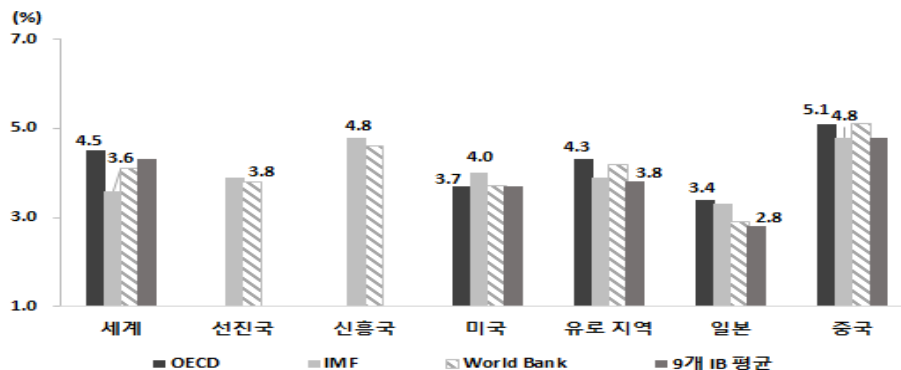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초래할 인플레이션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최저 3.6%에서 최고 4.5%로 전망함

- IMF는 2022년 4월 세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각국 긴축정책과 중국의 성장둔화 등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2022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 대비 0.8%p 하향 조정함⁷⁾

〈그림 8〉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주: 9개 IB: Barclays, BoA-ML, Citi, BnP Paribas,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Societe Generale, UBS
 자료: IMF(2022. 4); OECD(2021. 12); World Bank(2022. 1); 9개 IB 평균(2021. 12)

6)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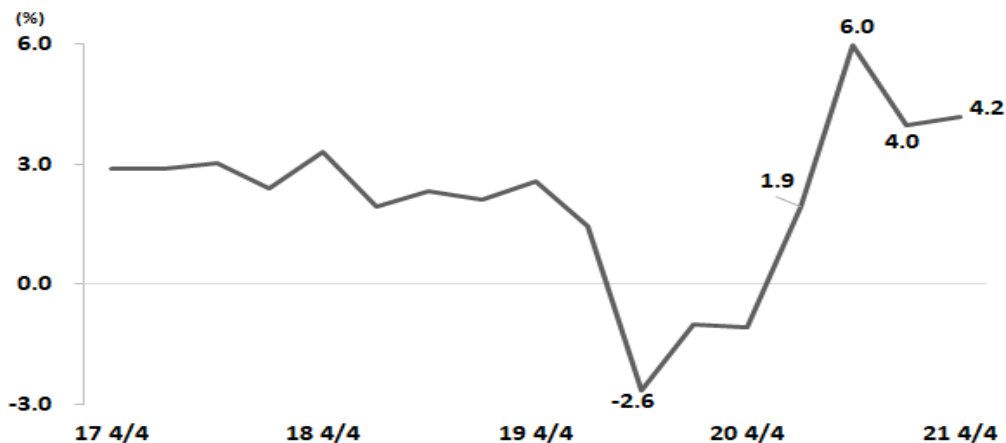
7)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나. 국내경제

○ 2021년 4/4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증가가 경제 회복세를 견인하며 전년 동기 대비 4.2% 성장함

- 2021년 4/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0년 2/4분기 이후 최고치인 6.3%를 기록함
 - 소매판매는 4/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였고, 2021년 연간 평균 6%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함
 - 소비자심리지수는 2021년 3/4분기 소폭 하락하였으나, 4/4분기 다시 상승하여 106을 기록하며 소비심리 회복 흐름을 이어감
-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는 3/4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건설투자는 부진을 지속함⁸⁾
 - 설비투자와 지식생산물투자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1%, 3.9% 확대된 반면,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며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기계수주는 민간과 공공 수주가 모두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5.8%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였고, 건설수주는 10월 증가했으나 12월 큰 폭 줄어 4/4분기 종합 2.2% 감소함
-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였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2% 확대됨

〈그림 9〉 국내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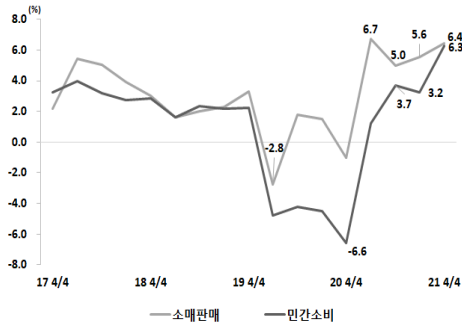


주: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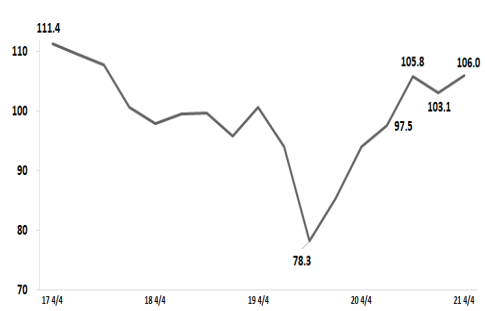
8) 통계청 보도자료(2021. 11),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1. 12),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2. 1), “2021년 12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0〉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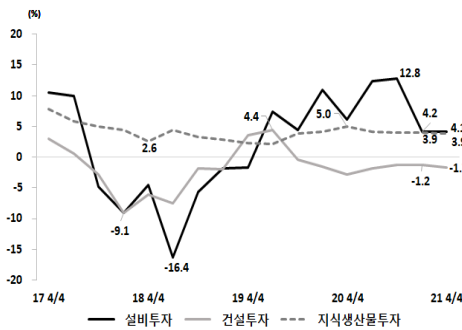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1〉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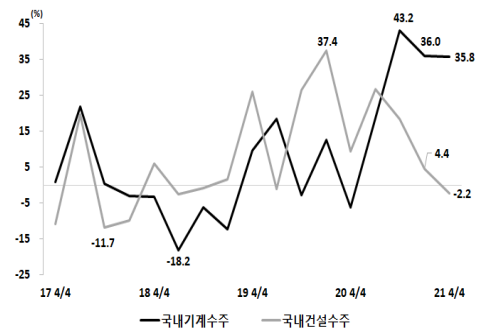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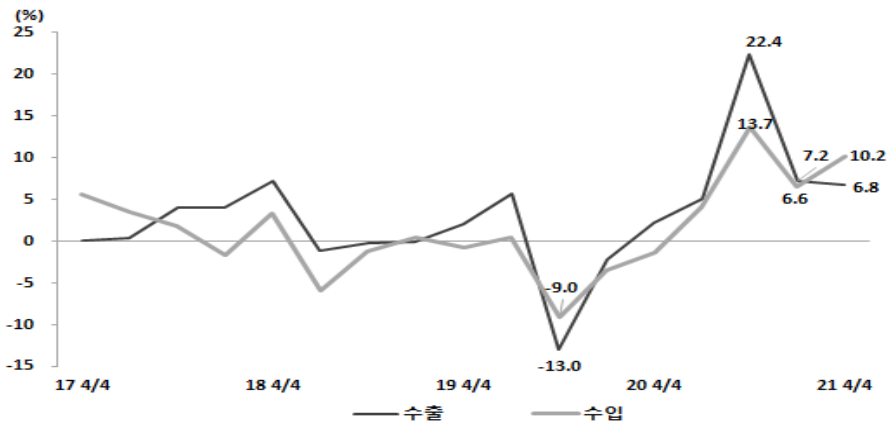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3〉 기계수주, 건설수주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그림 14〉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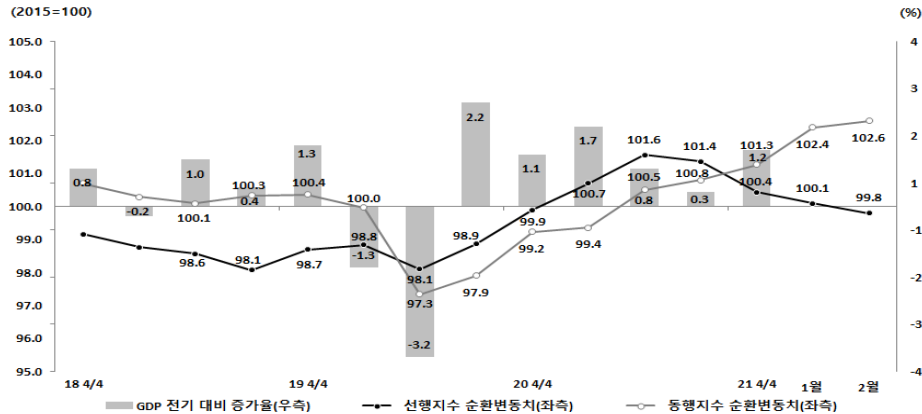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4/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4분기 대비 1.0p 하락한 100.4,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5p 상승한 101.3을 기록함

- 2022년 2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99.8)는 2021년 2/4분기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지속되며 100 아래로 하락한 반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2.6)는 상승세를 지속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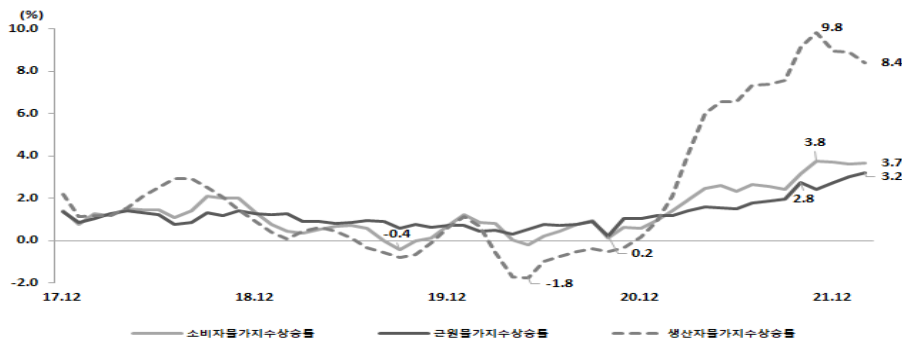
〈그림 15〉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주: 2022년 1월과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21년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 3.8%를 기록 후 2022년 2월까지 3.7%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2021년 4/4분기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는 국제유가 상승 지속, 연말 성수기 개인서비스 가격 오름폭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침⁹⁾

〈그림 16〉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9) 기획재정부(2021. 11; 2021. 12; 2022. 1), 「최근경제동향」

○ 국내외 주요 기관은 국내 방역조치 완화 기조와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가 지속된다면 2022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 한국은행과 KDI는 2022년 투자 및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세 지속을 예상하여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각각 3.0%, 2.8%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¹⁰⁾은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2.0%(Nomura)에서 최고 3.2%(Credit Suisse, JP Morgan), 평균 2.7%로 전망함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¹⁾		2023(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0.9	4.0	3.0	2.8	2.5	2.3
민간소비	-5.0	3.6	3.5	3.7	2.6	3.9
설비투자	7.1	8.3	2.2	-4.0	1.7	2.4
건설투자	-0.4	-1.5	2.4	-1.3	2.3	2.3
지식생산물투자	4.0	3.9	3.9	4.6	3.8	3.4
상품수출	-0.5	9.8	3.4	4.3	2.2	2.5
상품수입	-0.1	11.9	3.8	4.2	2.3	2.8
실업률	4.0	3.7	3.6	3.1	3.7	3.3
소비자물가	0.5	2.5	3.1	4.2	2.0	2.2
경상수지	759	883	700	516	680	602
상품수지	806	762	680	442	750	65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47	121	20	74	-70	-48

주: 1)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2. 2),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2. 5), 『KDI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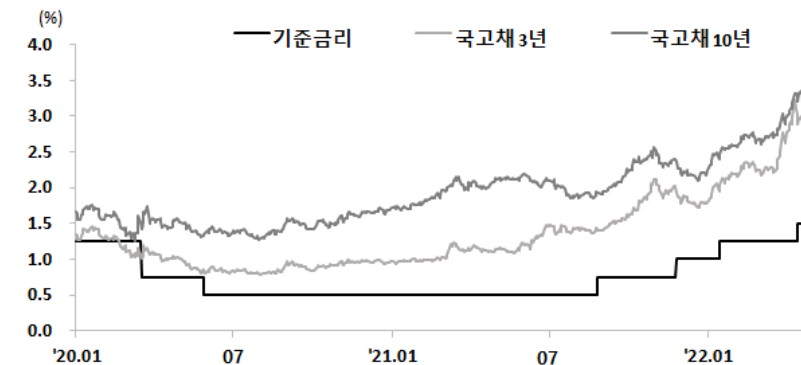
10) 9개 IB(Barclays, BoA-ML, Citi, Goldman Sachs, J.P.Morgan, Nomura, Credit Suisse, HSBC, UBS), 2022년 4월 말 기준임

2. 금융

가. 금리

-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됨에 따라 4월 14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함¹¹⁾
 - 한국은행은 국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으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냄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기대와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¹²⁾ 국내 추경 편성 부담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며 4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급등함
 - 2022년 4월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3.22%, 3.35%를 기록함

〈그림 17〉 기준금리, 장단기 국고채 금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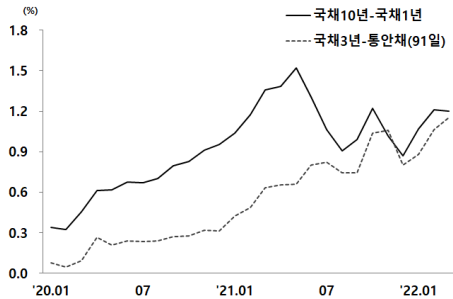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으며, 신정부의 2차 추경 추진에 따른 국채 발행 확대 등의 우려로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됨
 -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 등의 영향으로 단기물 중심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2월 44.0bp에서 4월 10.1bp까지 축소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AA-, 국고채 3년물)는 국채발행 확대 및 2차 추경¹³⁾ 등의 수급 이슈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의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어 1월 57.2bp에서 3월 65.9bp로 확대됨

11)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 4. 14), “통화정책방향”

12)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 3. 10), “2022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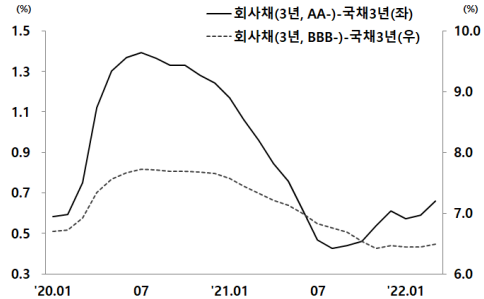
1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함(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2. 4), 『금융시장 브리프』)

〈그림 18〉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19〉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 미국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과 강력한 통화 긴축 스탠스 등으로 인해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임

- 2022년 2월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1월 말 1.78%에서 2.04%로 상승함
 -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7.8%로 40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함
- 미 연준은 2022년 3월 17일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p 상향조정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년 6회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장단기(10년물-2년물)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함
 - 2022년 4월 1일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2년물)는 -7.4bp로 일시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됨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2/4분기 한국의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 모두 지난 1월 전망치에 비해 상향 조정함

- 2022년 2/4분기 한국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각각 2.90%, 2.99%로 지난 1월 전망치에 비해 0.51%p, 1.00%p 상향 조정하였고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2.64%로 지난 전망치에 비해 0.79%p 상향 조정함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3년) 금리		
'22. 2Q	3Q	4Q	'22. 2Q	3Q	4Q	'22. 2Q	3Q	4Q
2.64	2.71	2.76	2.99	2.99	2.94	2.90	2.82	2.78

주: 2022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5월 초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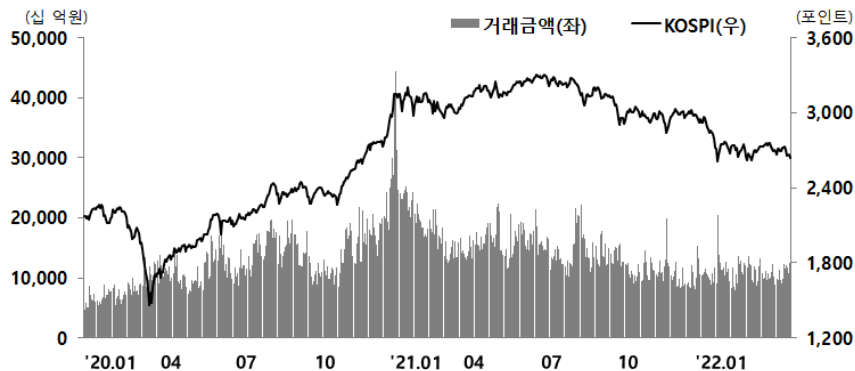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 주가 및 환율

○ 코스피(KOSPI)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 등의 영향이 혼재하며 2,000포인트 후반에서 등락을 나타냄

- 2022년 2월 코스피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으나 1월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1월 말 2,663포인트에서 2월 2,772포인트로 상승함
- 이후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견조한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 시중금리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며, 2,630~2,761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함

〈그림 20〉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기축 스탠스 강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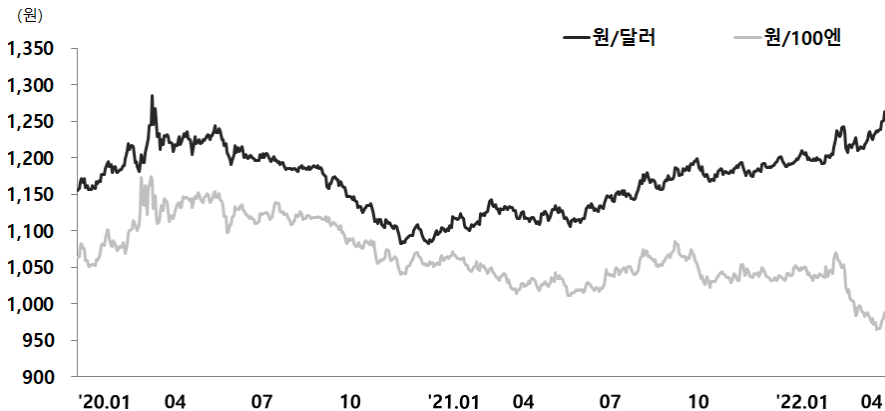
- 2022년 2월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긴축 기조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대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개입 의지가 반영되며 제한된 상승세를 보임
 - 원/달러 환율은 1,100원 후반과 1,200원 초반 사이에서 등락을 보임
- 이후 국내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따른 유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3월 초 1,200원에서 4월 말 1,263원으로 상승함

○ 원/엔 환율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고 일본 중앙은행(BOJ)이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완화 스탠스를 고수함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됨

- 원/엔 환율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었으나 엔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 약화로 상승세가 제한되며, 2월 말 1,041원을 기록함

- 3월 미 연준과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미·일간 금리차 확대,¹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엔 환율은 3년 만에 1,000원 아래로 하락함
- 4월 말 원/엔 환율은 966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함

〈그림 21〉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2/4분기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이 전분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달러/유로 환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 긴축 가속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평균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22. 1Q	2Q	'22. 1Q	2Q	'22. 1Q	2Q
Wells Fargo	1,212	1,260	122	128	1.11	1.06
Mizuho Bank		1,280		131		1.07
Morgan Stanley		1,250		120		1.08
BNP Paribas		1,235		125		1.11

주: 2022년 2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5월 초 기준임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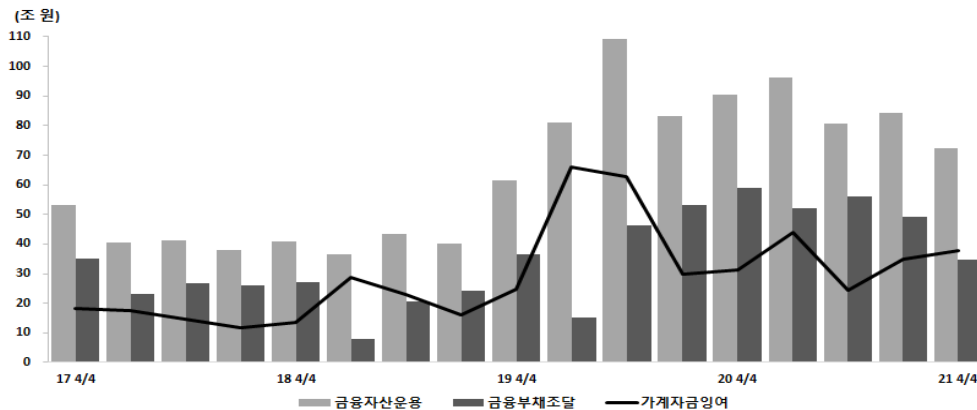
14) 미·일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 21년 12월 30일 143bp → 22년 3월 27일 223bp(20년 2월 이후 최대)

3. 자금흐름

○ 2021년 4/4분기 가계부문¹⁵⁾ 자금잉여¹⁶⁾는 전분기 대비 2.8조 원 증가하여 37.8조 원 발생함

- 금융부채조달과 금융자산운용 모두 전기 대비 감소하여 각각 34.7조 원, 72.5조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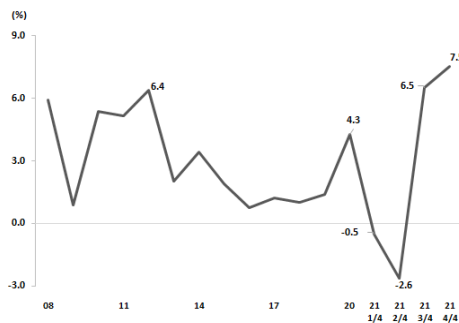
〈그림 22〉 가계자금잉여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4/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5% 늘어나며 3/4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3/4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6%로 상승세를 지속함

〈그림 23〉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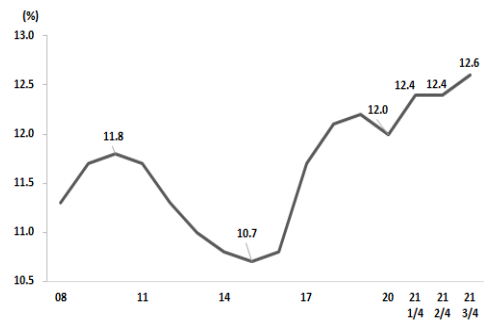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2020년 이후 증가율은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에서 '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로 변경, 발표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4〉 DSR



자료: BIS

15)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16)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 가계부문 금융상품거래는 2020년 최대치 기록 후 2021년 소폭 감소하였으며,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래금액은 감소한 반면, 국내외 주식과 투자펀드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2021년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2020년에 기록한 최저치 20.1%에서 소폭 상승한 21.1%로 전년도에 이어 낮은 수준을 지속함

〈표 4〉 가계 금융상품 거래

(단위: 조 원, %)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18	75.3	60.7	(37.8)	0.0	21.8	1.7	0.0	160.7
2019	130.7	72.0	(39.6)	-17.3	-7.9	2.1	2.0	181.6
2020	189.9	73.0	(20.1)	10.2	62.2	20.6	-6.6	363.8
2021	172.0	70.2	(21.1)	-31.8	87.6	22.9	4.9	333.3
2021 1/4	41.9	13.8	(14.4)	-11.8	36.5	12.5	2.6	96.1
2021 2/4	36.3	13.0	(16.1)	-5.1	29.2	2.8	1.0	80.5
2021 3/4	42.1	12.2	(14.5)	0.7	26.1	2.4	-1.4	84.2
2021 4/4	51.7	31.2	(43.0)	-15.6	-4.1	5.2	2.8	72.5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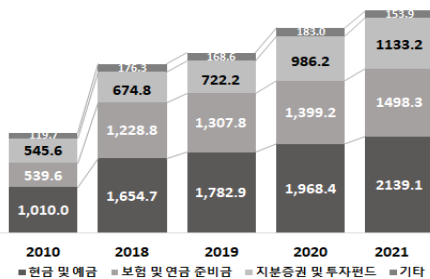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 비중은 2020년보다 0.4%p 하락한 30.4%를 차지함

- 2021년 가계 자산 중 현금 및 예금 비중은 2020년과 동일한 43.4%이고,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비중은 전년도보다 1.3%p 증가한 23.0%임

〈그림 25〉 가계금융자산 구성(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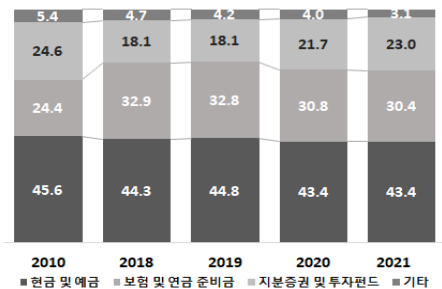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26〉 가계금융자산 구성(비중)

(%)



자료: 한국은행

4. 규제·제도

○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변경·시행(2022. 4. 1)(2022. 3. 28 금융감독원)

-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개정하여 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되도록 하는 한편,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사진 제출 절차를 간소화함

○ 新지급여력제도(K-ICS) 최종안 및 경과조치 적용방안과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령 개정사항 (2022. 2. 24 금융위원회)

-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2023년)으로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로 개편될 예정임
- K-ICS 도입 시 기존 RBC 대비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고, 리스크 신뢰수준도 99.0%에서 99.5%로 상향 조정되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연착륙 방안으로 「K-ICS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경과조치 적용기간(최대 10년)도 충분히 부여하기로 함
- K-ICS 비율은 가용자본/요구자본으로 K-ICS 경과조치의 주요 내용은 가용자본에 적용되는 기발행 자본증권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책임준비금 증가분이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것은 신규 보험위험 및 기존위험 증가효과의 점진적 인식임
- IFRS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분기 중 건전성제도 및 업무보고서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변경예고를 할 예정임

○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강화(2022. 2. 21 금융위원회)

-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 확대 및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 자금세탁방지교육정책방향」을 마련함
- 보험업권과 관련하여서는 의심거래 참고유형 및 의심거래보고(STR) 작성기법 등 현장에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책자를 2022년 2분기 중 작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민간교육기관의 STR 과정을 보다 실무·사례 위주로 개편하고, 전문 강사지원과 방문교육·간담회 개최 등도 적극 추진할 것임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및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2022. 2. 16 금융위원회)

- 혁신금융서비스 중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단체보험 제공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업성 보험 가입 시에 대면계약 절차 대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서비스의 기간을 2024년 2월 18일까지 연장함

II

보험동향

- 2021년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1,359조 원임
 -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992조 원이었으며, 손해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366조 원임
 -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에는 보험료와 이익잉여금 증가가 주로 기여함
- 2021년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실제사업비)은 5.0조 원 흑자임
 - 2021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118.8조 원임
 - 수입보험료 감소와 보험금 지급 증가에도 사업비가 감소하면서 보험영업현금흐름이 흑자를 기록함
- 2021년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실제사업비)은 1.96조 원 흑자를 기록함
 - 2021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107.7조 원임
 -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모두 개선되면서 보험영업현금흐름이 흑자를 나타냄
- 2021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함
 -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에도 배당수익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7조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및 장기보험 사업비율 하락과 투자영업이익 확대로 전년 대비 64.7% 증가한 4.3조 원을 나타냄
- 2021년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대비 확대됨
 - 2021년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도 중소형사 점유율이 전년 대비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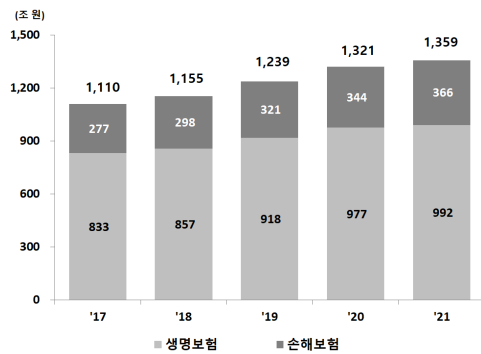
1. 성장성17)

가. 자산

○ 2021년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1,359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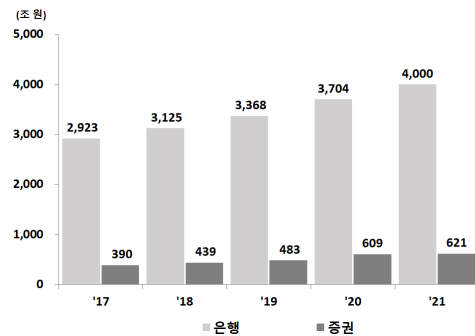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992조 원이며, 손해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366조 원임
- 은행산업 총자산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4,000조 원이며, 증권산업 총자산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621조 원임

〈그림 1〉 보험산업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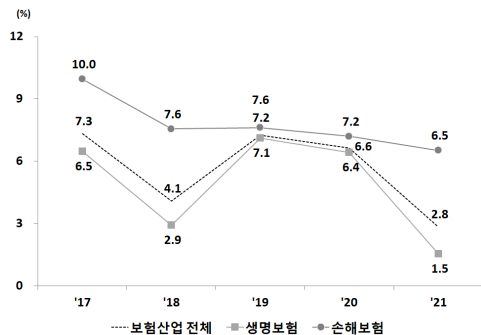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 은행 및 증권 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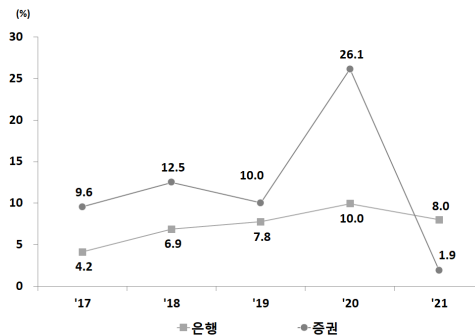
〈그림 3〉 보험산업 총자산 증가율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 은행 및 증권 총자산 증가율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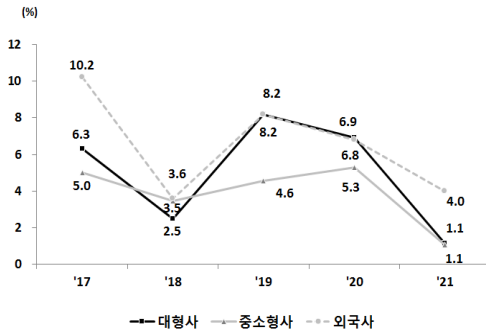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17) 보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산성장률을 제시하며, 본장에서는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보험산업 자산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각 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함.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험영업 중심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투자영업) 부문을 간과하고 현금 유출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21년 외국사 자산 증가율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¹⁸⁾¹⁹⁾

- 생명보험의 경우 외국사 자산 증가율이 4.0%이며, 대형사와 중소형사 자산 증가율은 모두 1.1%임
- 손해보험의 경우 외국사 자산 증가율이 1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산 증가율이 각각 9.0%, 5.1%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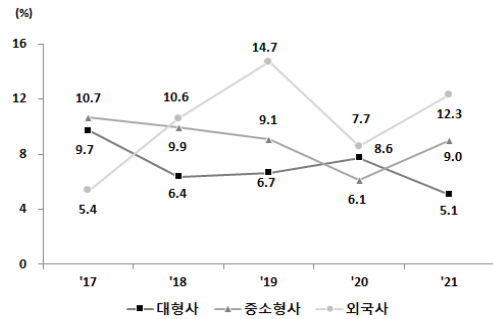
〈그림 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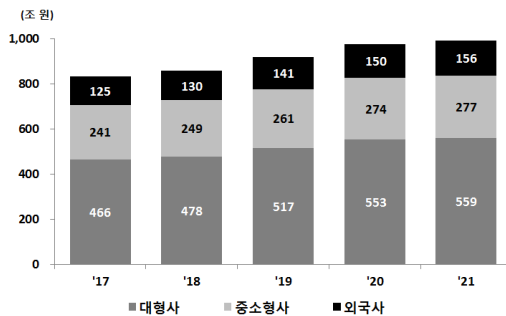
〈그림 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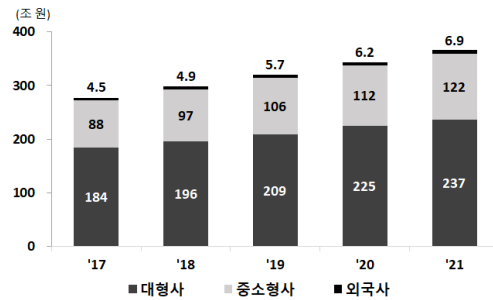
〈그림 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주: 생명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사이며, 중소형사는 11개사, 외국사는 9개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주: 손해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이며, 중소형사는 10개사, 외국사는 16개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8) 생명보험산업은 총 23개사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3개 회사, 중소형사 11개 회사와 외국사 9개 회사를 포함함(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

19) 손해보험산업은 총 30개사로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4개 회사, 중소형사 10개 회사와 외국사 16개 회사를 포함함(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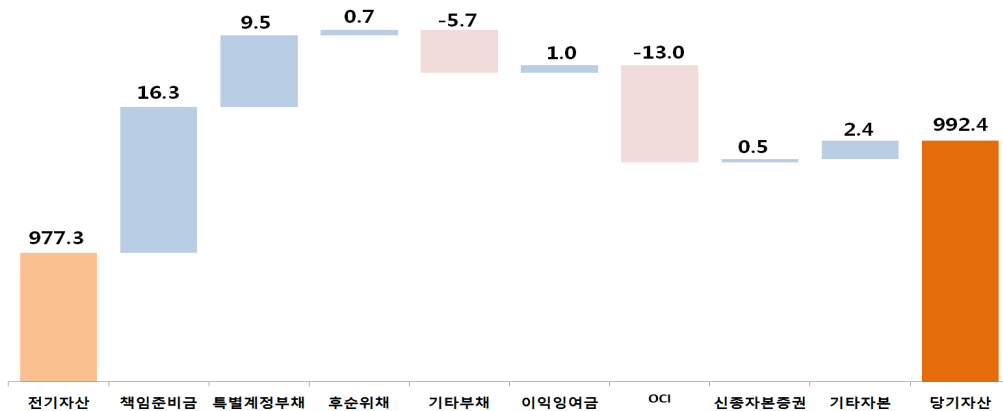
나. 생명보험 성장 요인

○ 2021년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대비 15.1조 원 증가한 992.4조 원임

- 책임준비금은 총자산 증가에 16.3조 원 기여하였으며, 특별계정부채도 총자산 성장에 9.5조 원 기여함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축소로 13.0조 원 감소함

〈그림 9〉 생명보험산업 자산 변화

(단위: 조 원)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참고: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

-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 + 기타(LAT 추가 적립 등)’로 나타낼 수 있으나,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이 드러나지 않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를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으로 추정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
 - 손익계산서로부터 ‘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책임준비금전입액’이므로 ‘책임준비금전입액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인데,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책임준비금 증감

$$= \text{책임준비금전입액} + \text{기타}$$

$$= [\text{보험영업이익} + \text{투자영업이익} - \text{영업이익}] + \text{기타}$$

$$= [(\text{수입보험료} - \text{보험금} - \text{사업비}) + (\text{재보험수익} - \text{재보험비용}) + \text{투자영업이익} - \text{영업이익}] + \text{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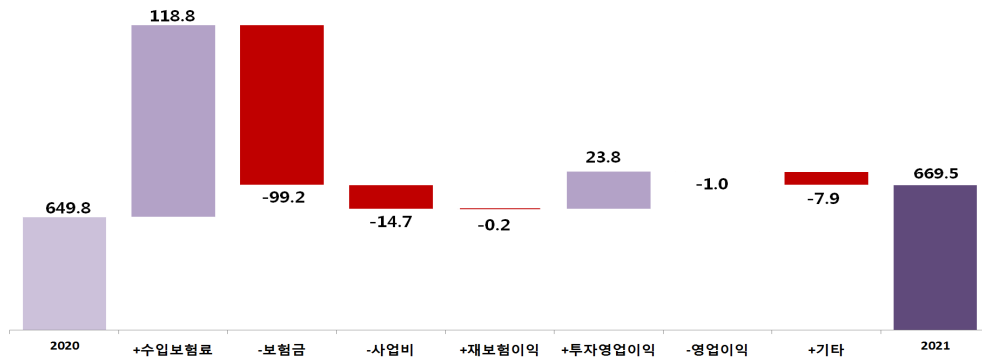
1)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 2021년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전년 대비 19.7조 원 증가한 669.5조 원임

-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사업비²⁰⁾를 차감한 금액은 5.0조 원 흑자였으며,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8조 원 증가함

〈그림 10〉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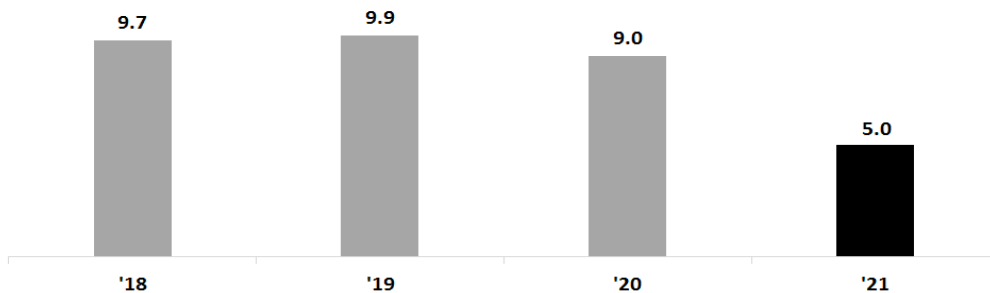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실제사업비)은 사업비 감소 등으로 5.0조 원 흑자를 나타냄

〈그림 11〉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주: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이연전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0)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

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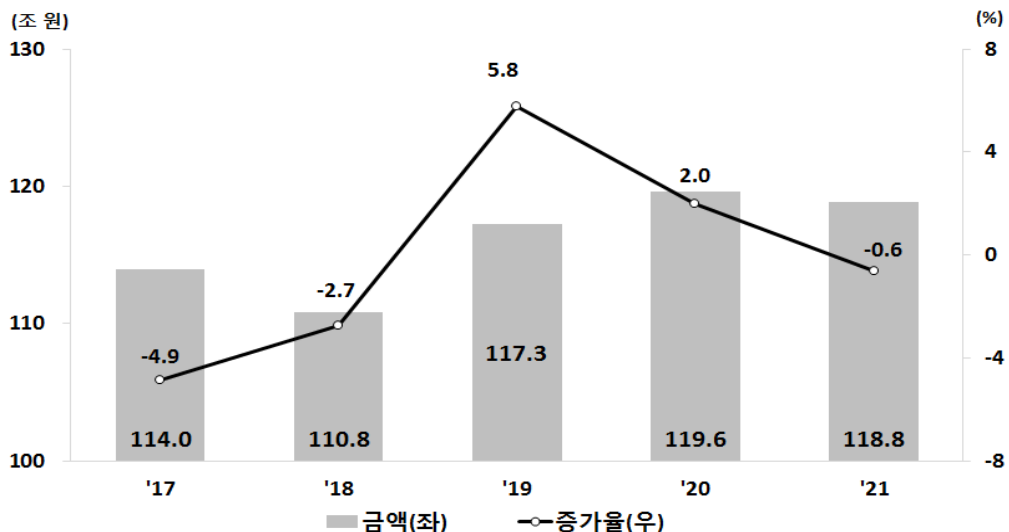
○ 2021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실적 둔화로 전년 대비 0.6% 감소한 118.8조 원을 나타냄

- 흡수 합병²¹⁾에 따른 업무보고서 결합의 영향으로 일부 종목의 수입보험료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종목별로 보면, 종신보험과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으나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함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흡수 합병의 영향과 종신보험 신규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한 45.8조 원을 나타냄
 -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4% 감소한 25.9조 원임
- 전체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48.4조 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변액저축성보험은 6.2% 증가한 16.4조 원을 나타냄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의 주요한 원인은 흡수 합병의 영향과 금리 경쟁력 축소임
-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각각 5.8%, 1.1% 증가한 23.9조 원, 0.8조 원임

〈그림 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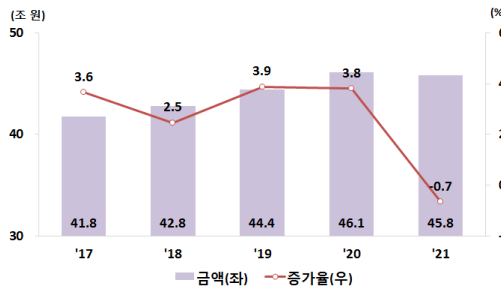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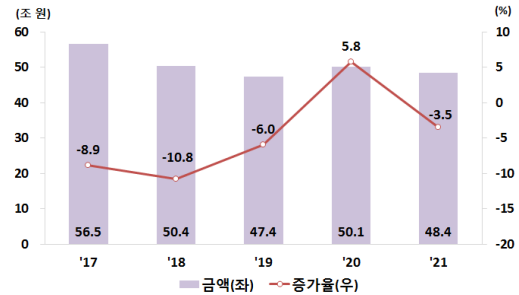
21) 금융위원회가 신한라이프의 오렌지라이프생명 흡수 합병 인가를 승인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두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업무보고서가 신한라이프 하나로 결합됨

〈그림 1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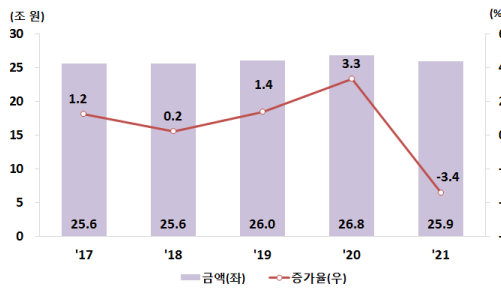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4〉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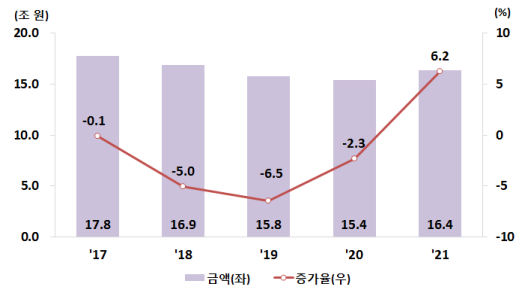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5〉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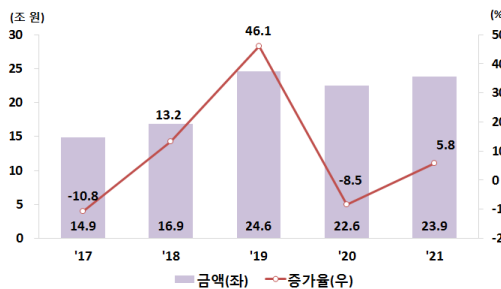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6〉 변액 저축성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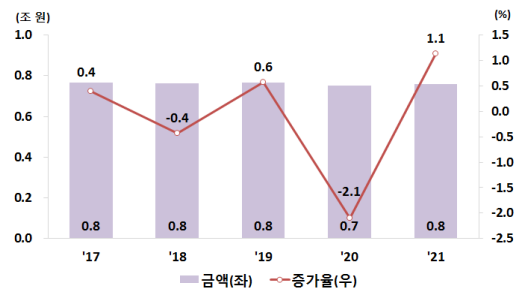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7〉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8〉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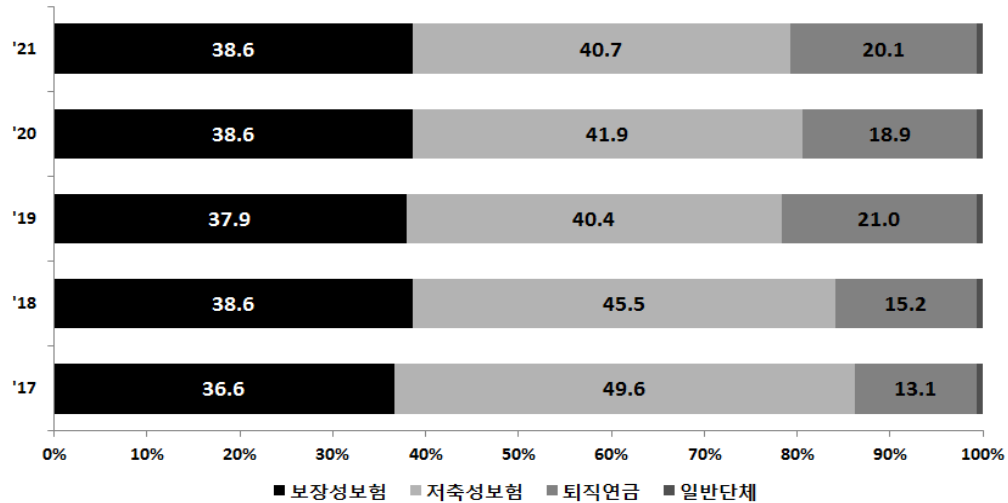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의 경우, 저축성보험 비중은 축소된 반면 퇴직연금 비중은 확대되었으며, 보장성보험 비중은 전년과 동일함

- 저축성보험 비중은 2020년 크게 확대된 저축보험의 기저효과 등으로 1.2%p 축소된 40.7%를 나타냄
- 보장성보험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38.6%를 기록하였으며, 퇴직연금 비중은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년 대비 1.2%p 확대된 20.1%를 나타냄

〈그림 19〉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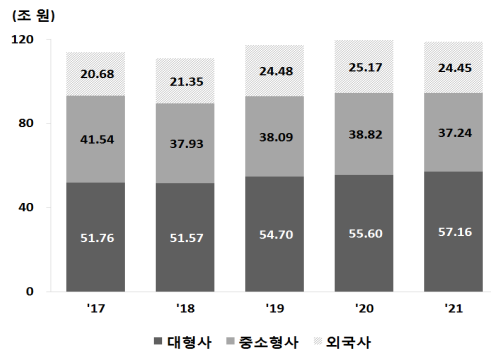


주: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21년 대형사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2.8%로 다른 그룹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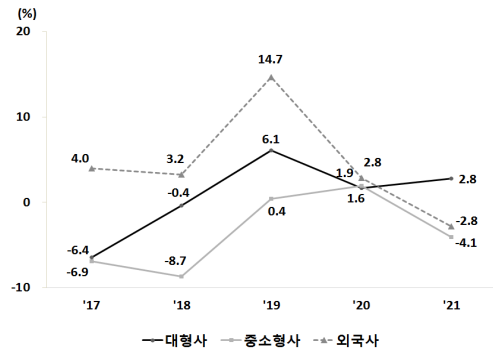
-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4.1%, -2.8%로 역성장을 나타냄

〈그림 20〉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1〉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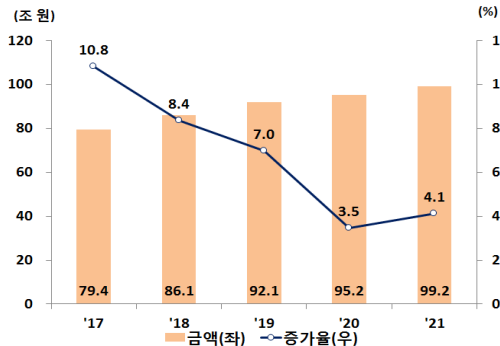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생명보험 보험금 및 사업비

○ 2021년 생명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전년 대비 4.5%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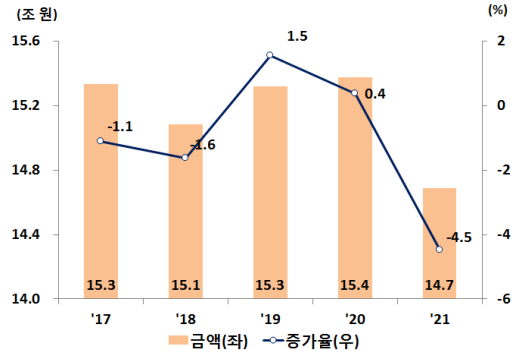
- 지급보험금은 환급금 확대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합병 등에 따른 대면채널 신규판매 위축으로 감소함

〈그림 22〉 보험금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3〉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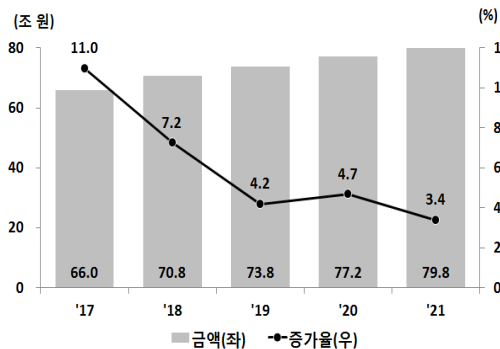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생명보험 보험금을 종목별로 보면, 환급금, 사망 및 상해 보험금, 만기 및 퇴직 보험금이 전년 대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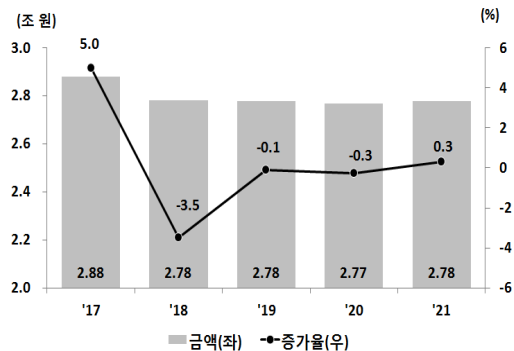
- 환급금은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사망 및 상해 보험금은 전년 대비 0.3% 증가함
- 만기 및 퇴직 보험금은 퇴직연금 수령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함

〈그림 24〉 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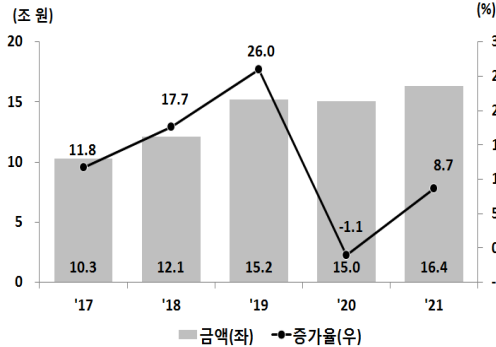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5〉 사망 및 상해 보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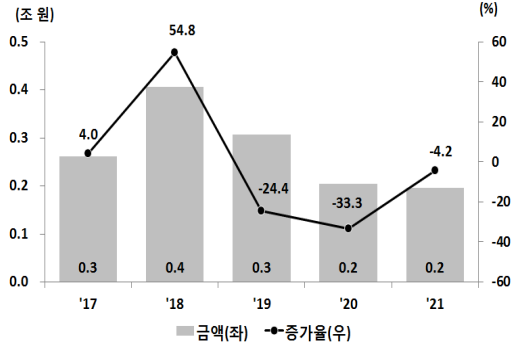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6〉 만기 및 퇴직 보험금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7〉 배당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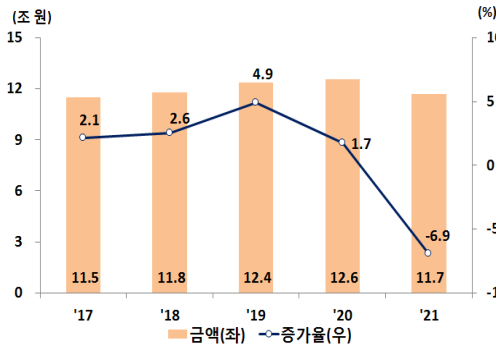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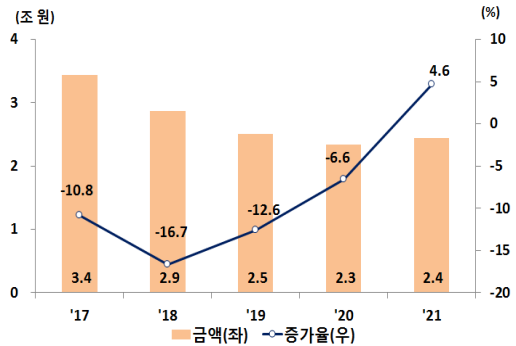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종신보험 신규 판매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함
-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연 초 저축보험 신규 판매 급증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함

〈그림 28〉 보장성보험 사업비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9〉 저축성보험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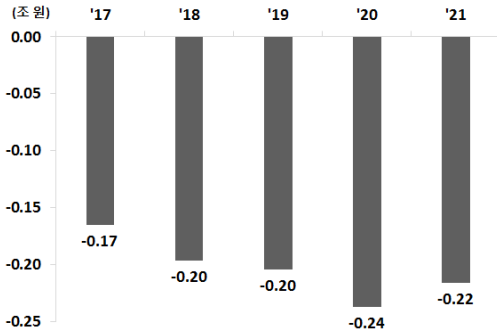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재보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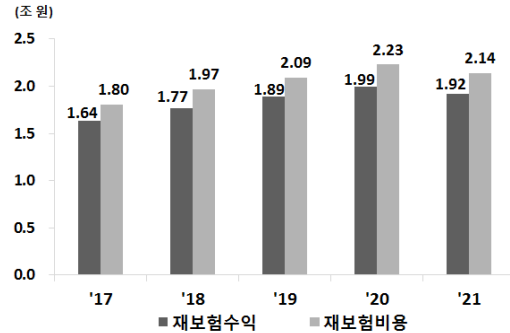
- 2021년 생명보험의 재보험 이익은 0.22조 원 적자를 나타냈으며, 재보험 수익과 재보험 비용은 각각 1.92조 원과 2.14조 원임

〈그림 30〉 생명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1〉 생명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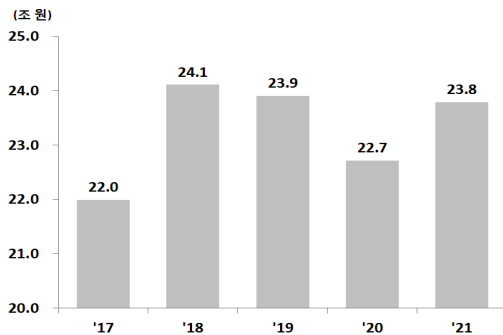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 2021년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조 원 증가한 23.8조 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7조 원 증가한 1.0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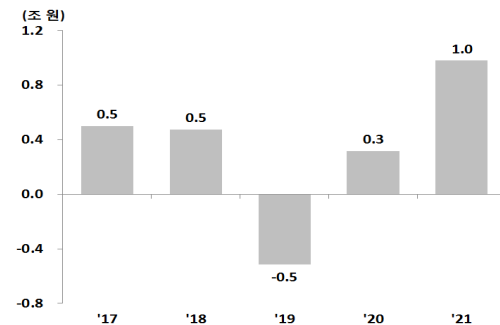
- 올해 초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배당수익 확대가 투자영업이익 확대에 크게 기여함
- 영업이익은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당수익 확대 등으로 크게 증가함

〈그림 32〉 투자영업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3〉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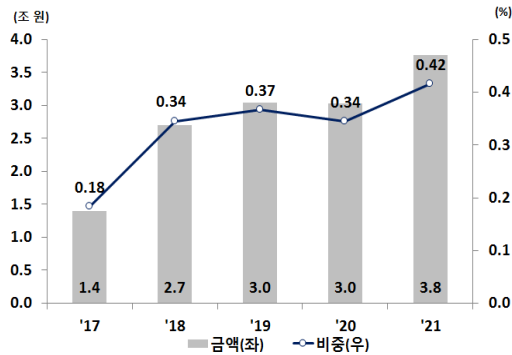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2021년 생명보험 후순위채와 기타부채²²⁾ 규모는 모두 전년 대비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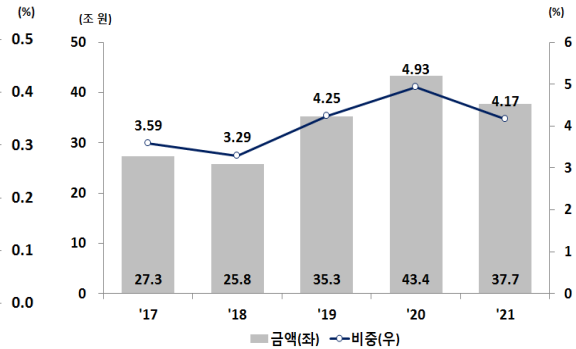
- 후순위채 규모는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²³⁾으로 전년 대비 0.8조 원 확대된 3.8조 원을 나타냄
- 기타부채 규모는 전년에 비하여 5.7조 원 감소한 37.7조 원을 기록함

〈그림 34〉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5〉 기타부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2) 2021년 들어 미래에셋생명보험, KB생명보험, DGB생명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각 3,000억 원, 1,300억 원, 500억 원, 545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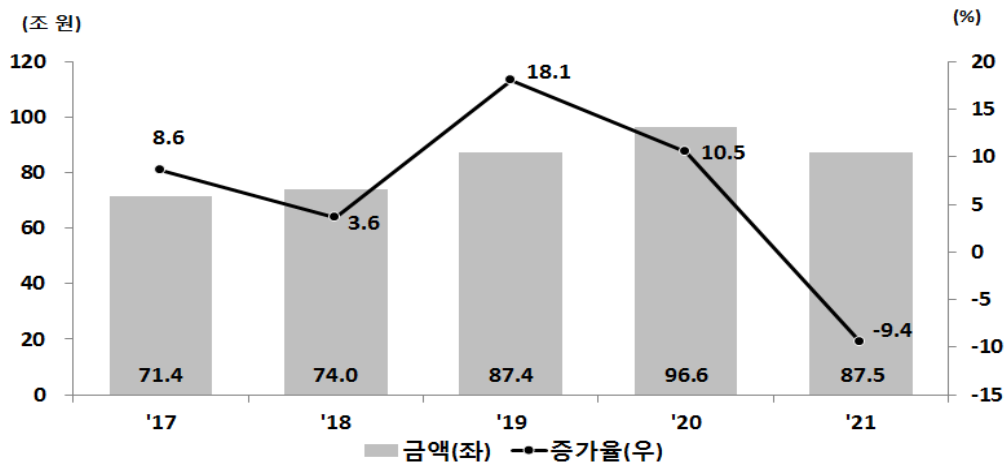
23)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3) 생명보험 자본

○ 2021년 생명보험 총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이 축소되어 전년 대비 9.4% 감소한 87.5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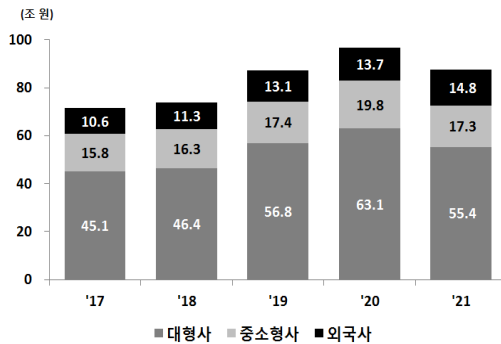
- 그룹별로 보면, 외국사의 총자본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총자본은 각각 전년 대비 12.3%, 12.6% 감소함

〈그림 36〉 생명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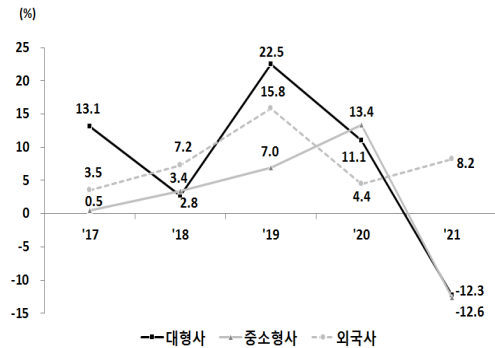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본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본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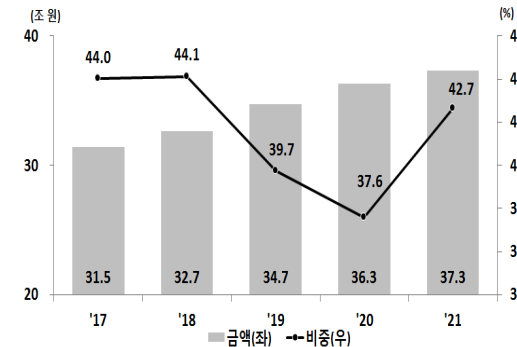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생명보험 총자본 가운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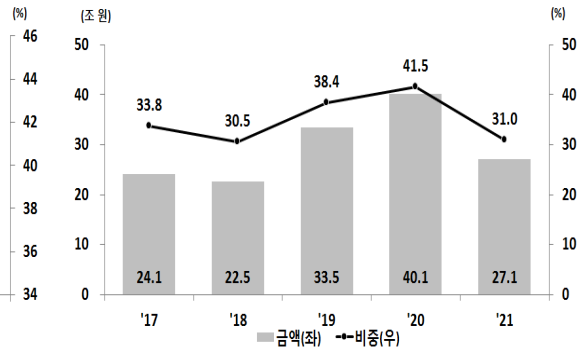
- 이익잉여금 비중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서 5.1%p 확대된 42.7%를 나타냄
-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비중은 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이익이 축소되면서 전년 대비 10.5%p 하락한 31.0%를 기록함
- 신종자본증권 비중은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²⁴⁾으로 전년 대비 1.0%p 확대된 5.4%를, 기타자본 비중도 전년 대비 4.5%p 확대된 21.0%를 나타냄

〈그림 39〉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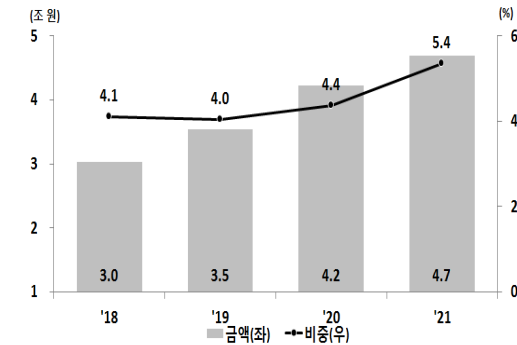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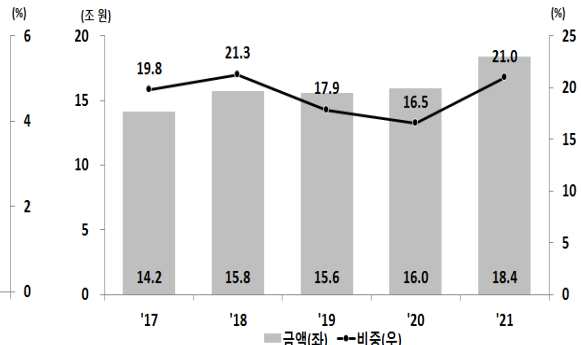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1〉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2〉 기타자본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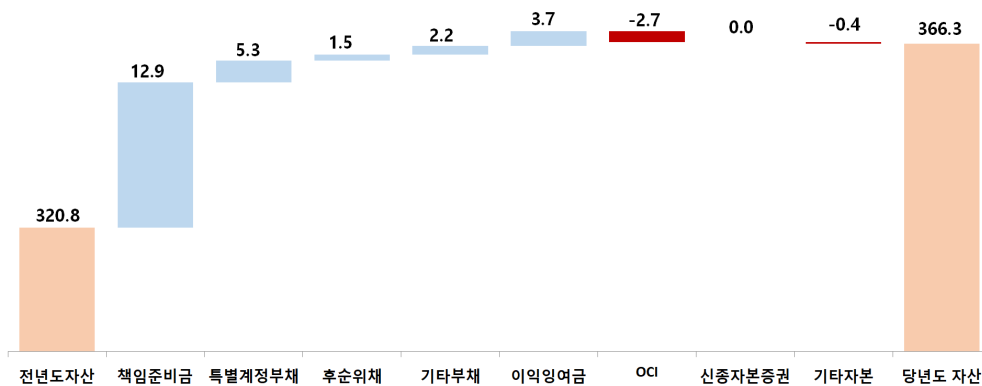
24) 2021년 9월 교보생명은 4,700억 원 규모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

다. 손해보험 성장 요인

- 2021년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년 대비 45.5조 원 증가하였으며,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이익잉여금 증가 등이 자산 성장에 기여함
 - 원수보험료 확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는 손해보험 총자산 성장에 12.9조 원 기여하였으며, 특별계정부채도 5.3조 원 확대됨
 - 또한,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이익잉여금 확대가 자산 성장에 3.7조 원 기여함

〈그림 43〉 손해보험산업 자산 변화

(단위: 조 원)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참고: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 〉

-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 + 기타(LAT 추가 적립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이 드러나지 않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를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으로 추정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
 - 손익계산서로부터 '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책임준비금전입액'이므로 '책임준비금전입액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인데,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책임준비금 증감

$$= \text{책임준비금전입액} + \text{기타}$$

$$= [\text{보험영업이익} + \text{투자영업이익} - \text{영업이익}] + \text{기타}$$

$$= [(\text{수입보험료} - \text{보험금} - \text{사업비}) + (\text{재보험수익} - \text{재보험비용}) + \text{투자영업이익} - \text{영업이익}] + \text{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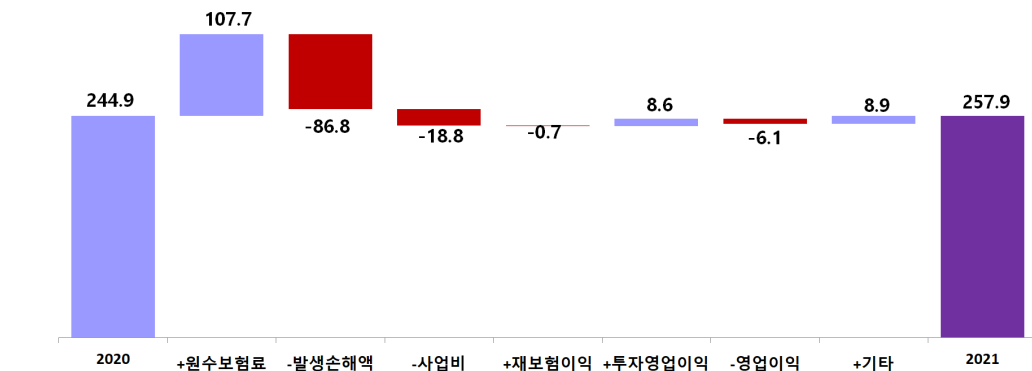
1)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 2021년 손해보험산업의 책임준비금은 전년 대비 13.0조 원 증가함

-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사업비²⁵⁾를 차감한 금액은 2.1조 원 흑자임
- 투자영업이익과 기타(LAT 추가 적립 등)가 책임준비금 증가에 각각 8.6조 원, 8.9조 원 기여함

〈그림 44〉 손해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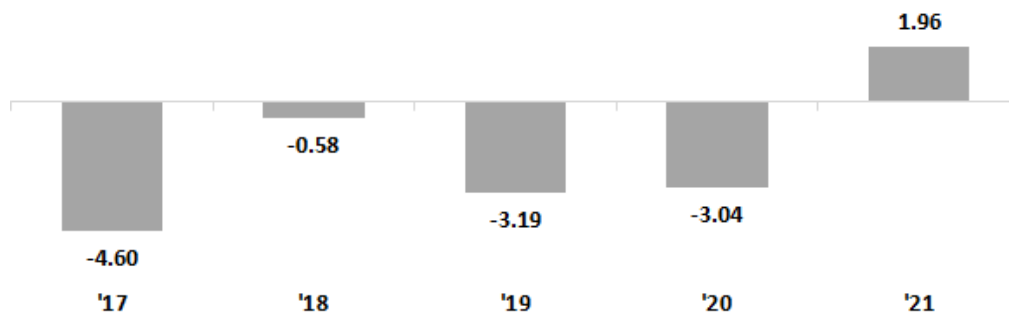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손해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실제사업비)은 원수보험료 확대와 손해를 개선으로 1.96조 원 흑자를 기록함

〈그림 45〉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주: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를 차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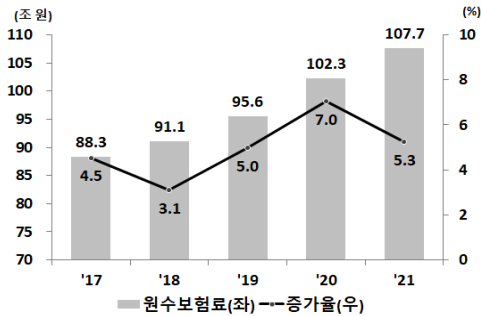
25)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

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2021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성장세로 전년 대비 5.3% 증가한 107.7조 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5.2% 증가한 58.8조 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하반기 자동차 보험료 인상²⁶⁾ 효과가 소멸되면서 전년 대비 3.7% 증가한 20.3조 원을 나타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주택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기타 특종보험 확대로 전년 대비 8.8% 증가한 11.6조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수요 둔화로 전년 대비 13.3% 감소한 2.6조 원을, 퇴직연금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4.3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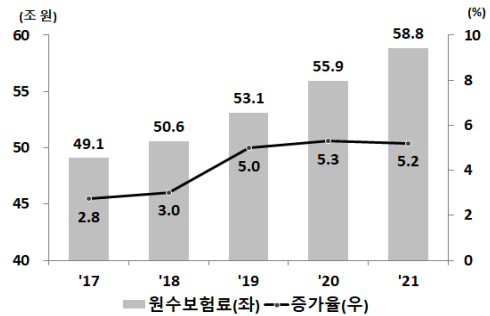
〈그림 46〉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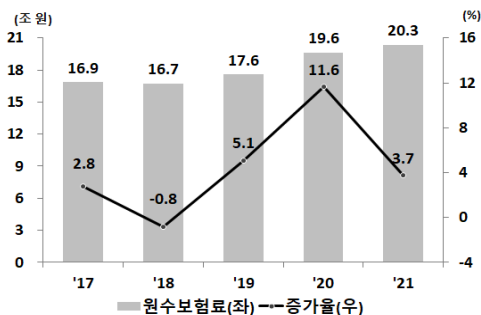
〈그림 47〉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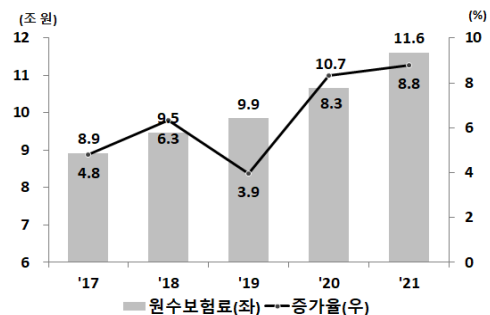
〈그림 48〉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9〉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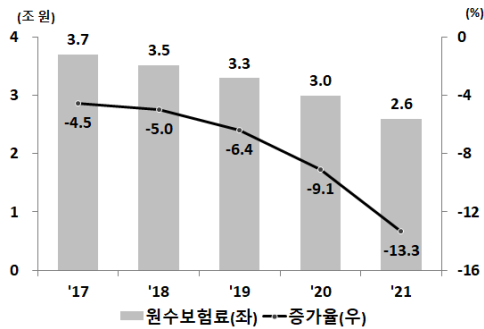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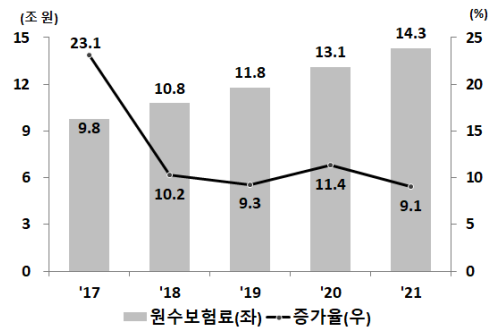
26) 2020년 2월 약 3.5%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짐

〈그림 50〉 개인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1〉 퇴직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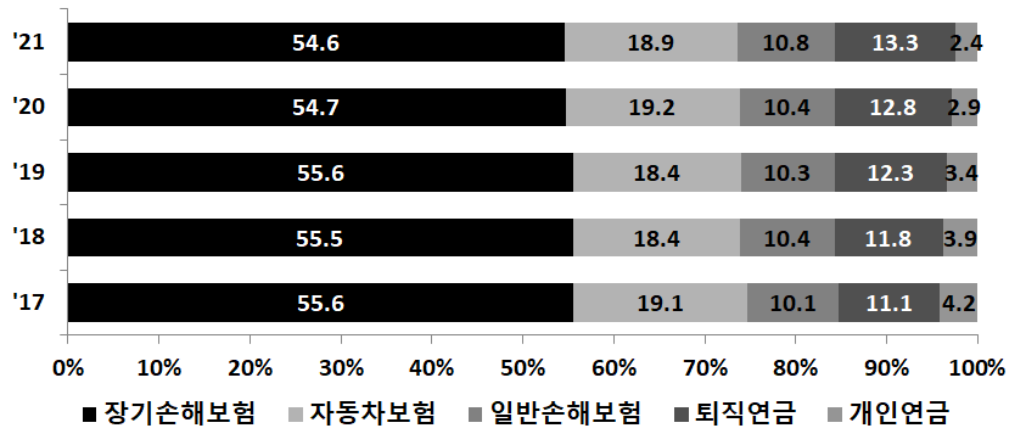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가운데 일반손해보험과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비중이 전년 대비 확대됨

- 장기손해보험은 보험료 증가에도 전년 대비 0.1%p 감소한 54.6%의 비중을,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성장세 둔화로 전년 대비 0.3%p 축소된 18.9%의 비중을 차지함
- 일반손해보험과 퇴직연금 비중은 보험료 증가로 전년 대비 각각 0.4%p, 0.5%p 확대된 10.8%, 13.3%를 나타냄
- 개인연금 비중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2.4%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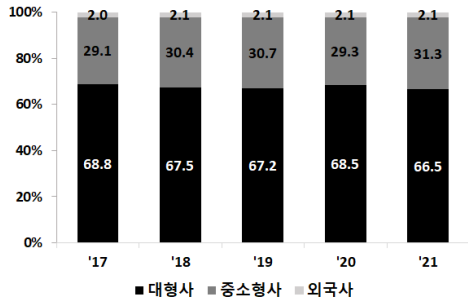
〈그림 52〉 원수보험료 종목별 비중



주: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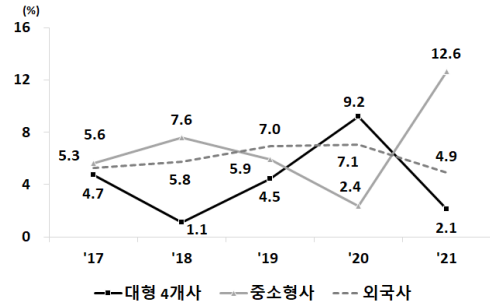
- 손해보험회사 유형별로 보면, 중소형사의 전년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음
 - 외국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4.9%, 대형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1%임

〈그림 53〉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4〉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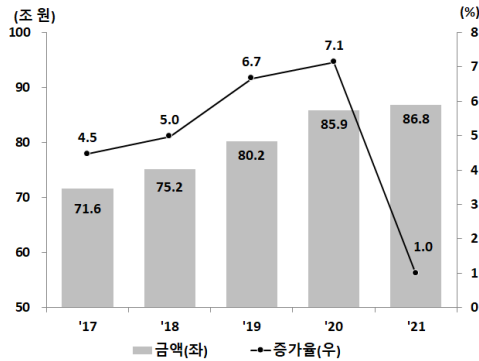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

- 2021년 손해보험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는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 발생손해액은 코로나19 반사효과 등으로 1.0%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사업비도 판매경쟁 완화와 비대면 채널 확대 등으로 0.5% 증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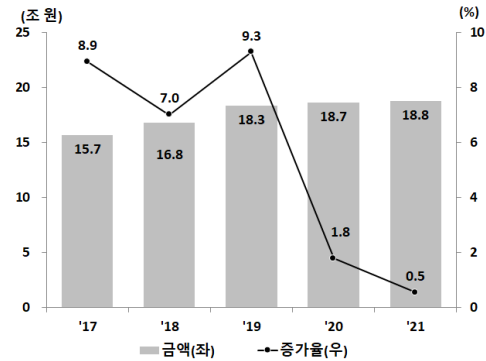
〈그림 55〉 발생손해액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6〉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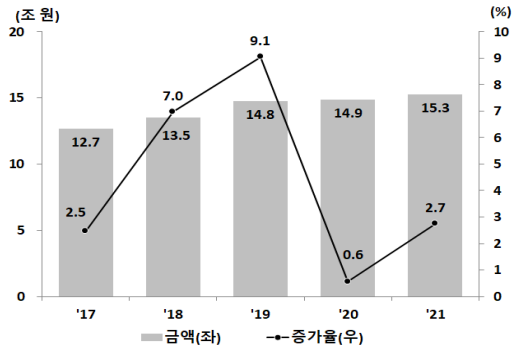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장기손해보험 사업비는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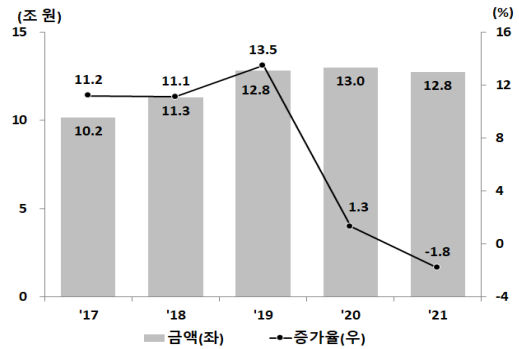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2020년 0.6% 증가하였고 2021년에도 2.7% 증가에 그침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는 질병 및 상해보험 신규판매 둔화와 판매경쟁 완화로 전년 대비 1.8% 감소함

〈그림 57〉 자동차 발생손해액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8〉 장기손해보험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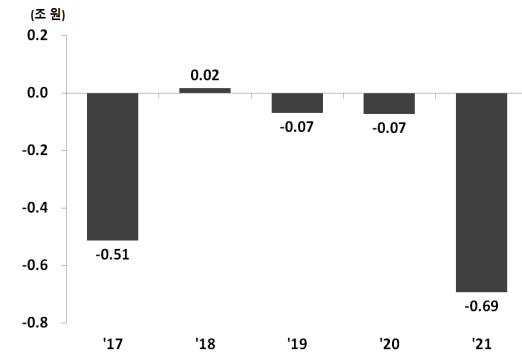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재보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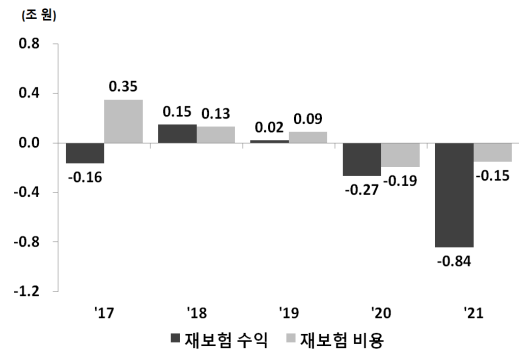
○ 2021년 손해보험의 재보험 이익은 재보험 수익이 감소하면서 0.69조 원 적자를 기록함

〈그림 59〉 손해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0〉 손해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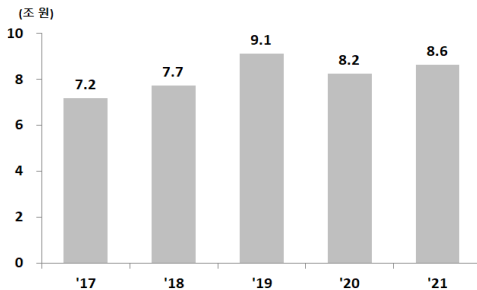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 2021년 손해보험의 투자영업이익 규모는 8.6조 원이며, 영업이익 규모는 6.1조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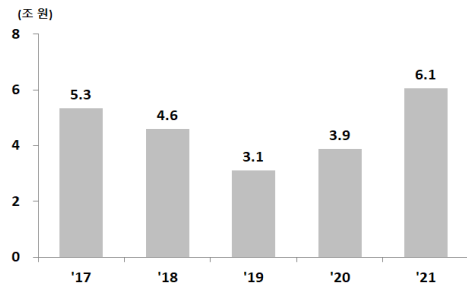
-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처분이익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0.4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영업이익은 손해율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2.2조 원 증가함

〈그림 61〉 투자영업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2〉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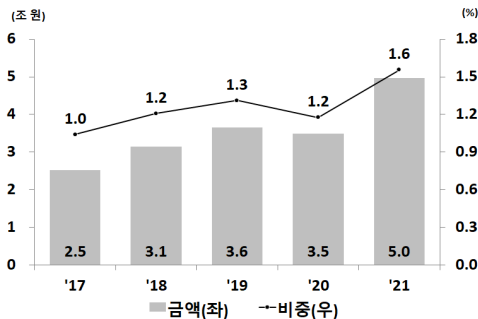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2021년 손해보험 총부채 가운데 후순위채와 기타부채²⁷⁾의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0.4%p, 0.2%p 확대된 1.6%, 6.3%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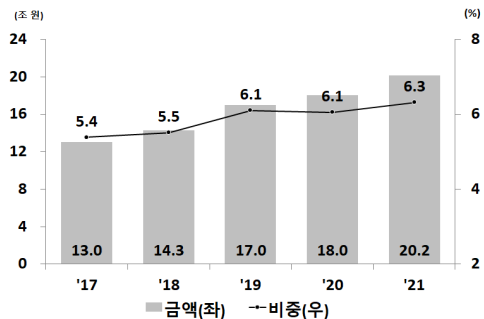
- 후순위채 규모는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²⁸⁾으로 전년 대비 1.5조 원 확대된 5.0조 원임
- 기타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2.2조 원 증가한 20.2조 원임

〈그림 63〉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4〉 기타부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7) 2021년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은 각각 4,990억 원, 3,790억 원, 3,5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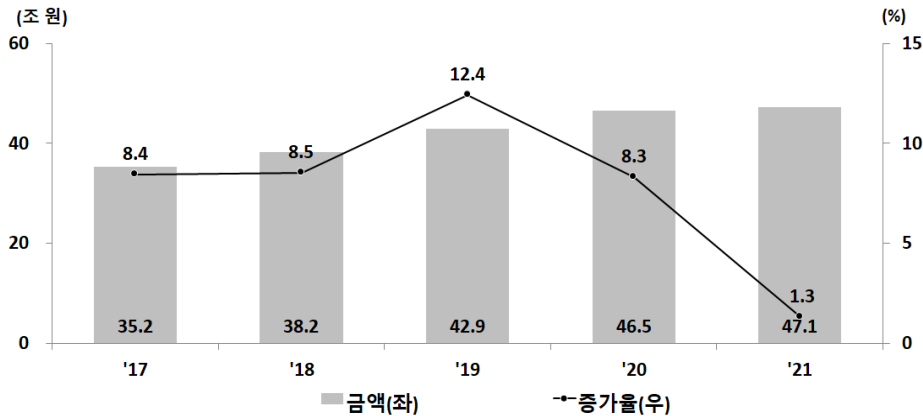
28)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3) 손해보험 자본

○ 2021년 손해보험 총자본은 전년 대비 1.3% 증가에 그친 47.1조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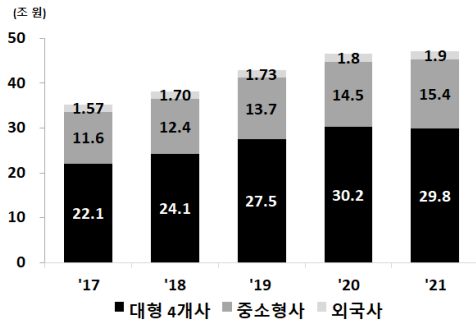
- 중소형사와 외국사 총자본은 각각 전년 대비 6.4%, 5.0% 증가하였으나 대형사 총자본은 1.3% 감소함

〈그림 65〉 손해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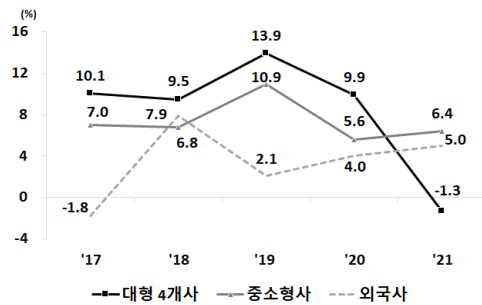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7〉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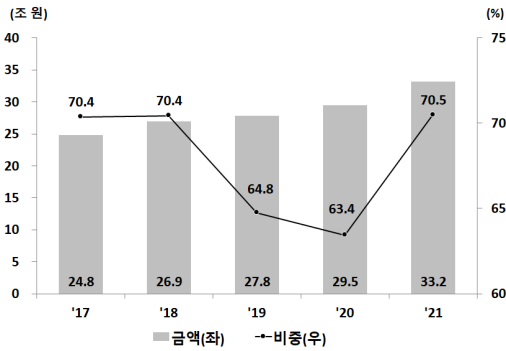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 총자본 가운데 이익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기순이익 증가로 2020년 63.4%에서 2021년 70.5%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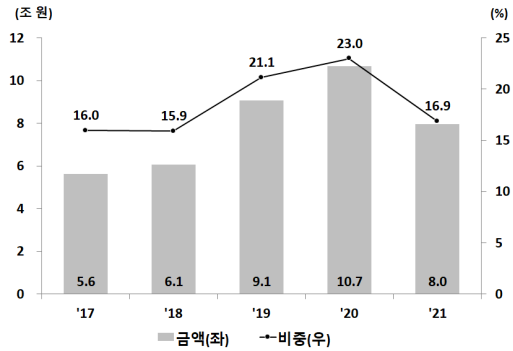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비중은 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이익이 감소하면서 2020년 23.0%에서 2021년 16.9%로 축소됨
- 신종자본증권과 기타자본 비중은 이익잉여금 비중이 확대되어 각각 2.5%, 10.1%로 축소됨

〈그림 68〉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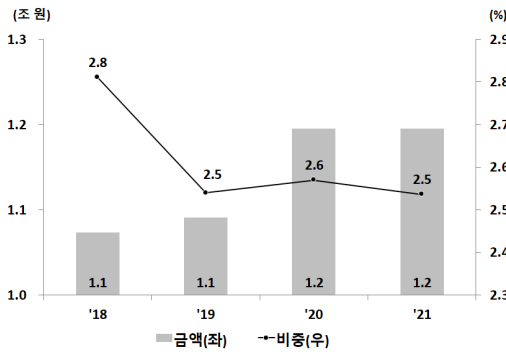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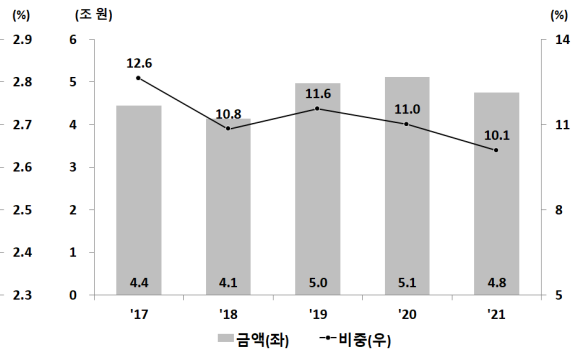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0〉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1〉 기타자본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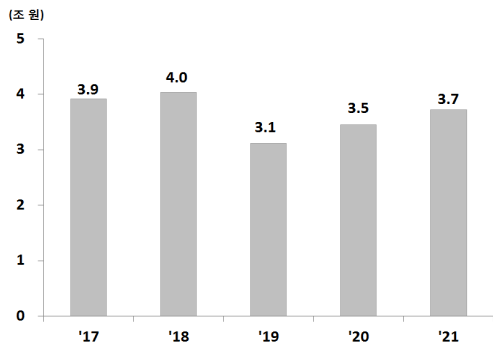
2. 수익성

가. 당기순이익

○ 2021년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7조 원을,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4.7% 증가한 4.3조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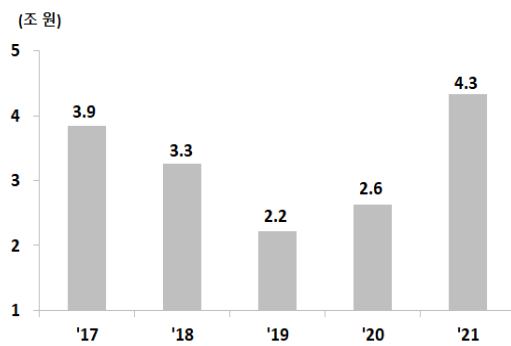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와 보험금 지급 증가로 보험영업이익은 악화되었으나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처분이익 축소에도 배당수익 확대 등으로 증가함
-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이자 및 배당수익의 소폭 증가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및 장기보험 사업비율 하락으로 크게 개선됨

〈그림 72〉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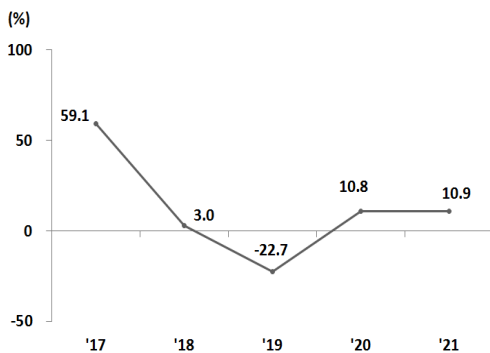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3〉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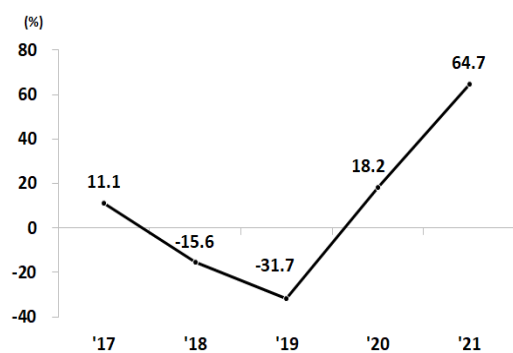
〈그림 74〉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5〉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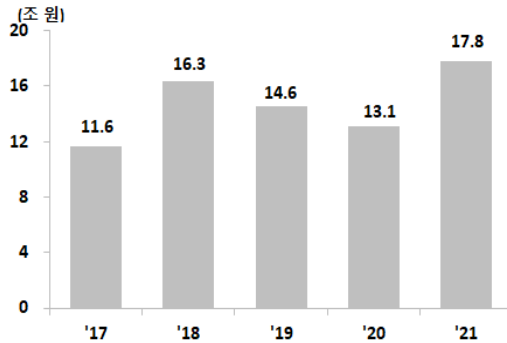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은행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5.5% 증가한 17.8조 원을, 증권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2.1% 증가한 9.0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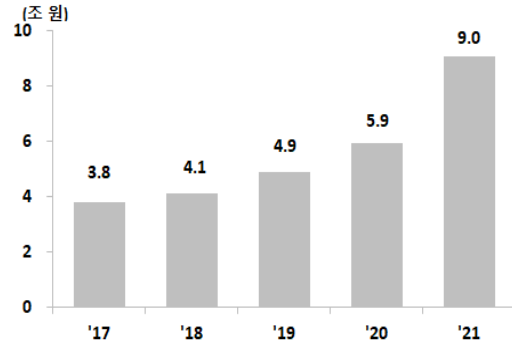
- 은행산업은 비경상적 이익 증가²⁹⁾ 및 이자수익 확대가, 증권산업은 수탁수수료·IB부문 수수료·자기매매이익 등 영업부문 이익 증가³⁰⁾가 당기순이익 확대의 주요한 원인임

〈그림 76〉 은행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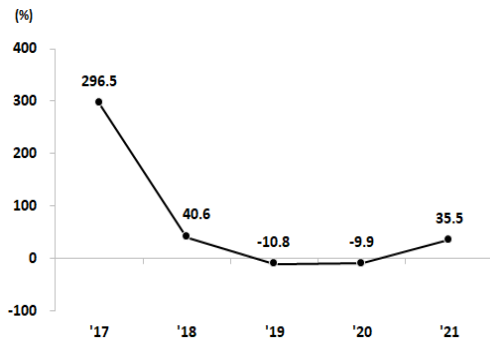
주: 국내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성됨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77〉 증권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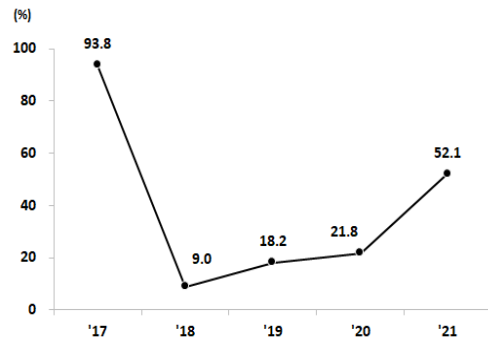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78〉 은행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79〉 증권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29)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산업은행의 HMM(舊 현대상선)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관련 이익(+ 1.8조 원) 등의 영향으로 증가함(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3. 16), “2021년 국내은행 영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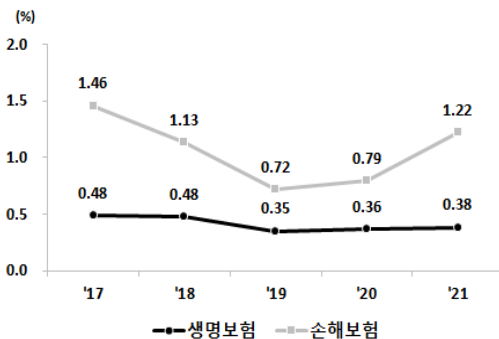
3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3. 21), “2021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

나. ROA, ROE

○ 2021년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ROA와 ROE는 모두 당기순이익 확대에 전년 대비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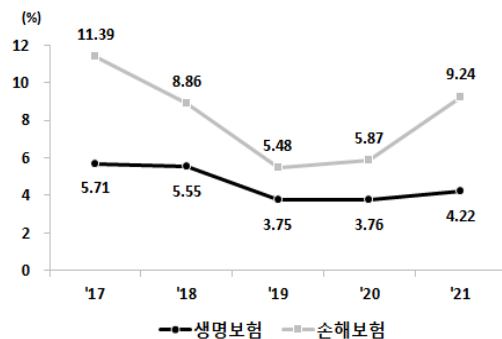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 ROA는 0.38%로 전년 대비 0.02%p 상승하였으며, 손해보험산업 ROA는 1.22%로 전년 대비 0.43%p 상승함
- 생명보험산업 ROE는 전년 대비 0.46%p 상승한 4.22%를, 손해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대비 3.37%p 상승한 9.24%를 나타냄

〈그림 80〉 보험산업 ROA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1〉 보험산업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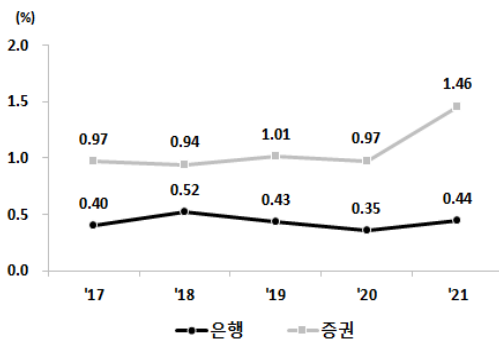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은행 및 증권산업의 ROA와 ROE는 당기순이익이 확대됨에 따라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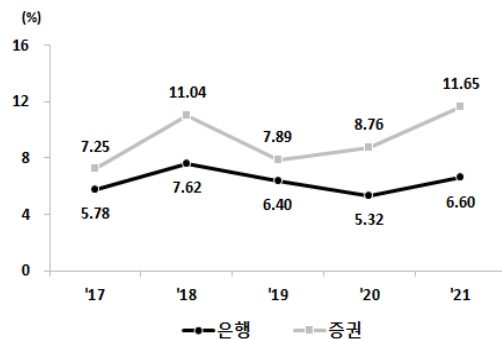
- 은행산업 ROA는 0.44%로 전년 대비 0.09%p 상승하였고 증권산업 ROA는 1.46%로 전년 대비 0.49%p 상승함
- 은행산업 ROE는 전년 대비 1.28%p 상승한 6.60%를, 증권산업의 ROE는 전년 대비 2.89%p 상승한 11.65%를 나타냄

〈그림 82〉 은행 및 증권산업 ROA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83〉 은행 및 증권산업 ROE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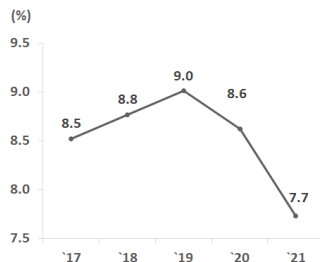
다. 보험영업이익 관련 지표

1) 생명보험

○ 2021년 생명보험산업의 해지율³¹⁾과 사업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보험금 지급률³²⁾은 전년 대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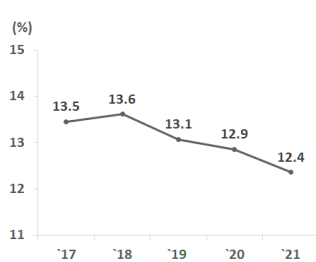
- 2021년 해지율은 2020년 말 0.9%p 감소한 7.7%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대형사의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사업비율은 저축성보험 판매 축소로 2020년 말 대비 0.5%p 감소한 12.4%를 기록하였으며, 중소형사의 사업비율이 외국사와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보험금 지급률은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83.4%로 나타났으며,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보험금 지급률이 크게 상승함

〈그림 84〉 생명보험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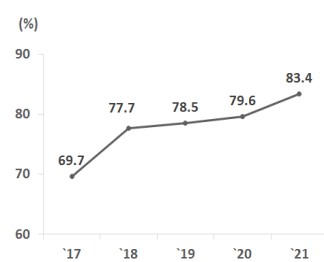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5〉 생명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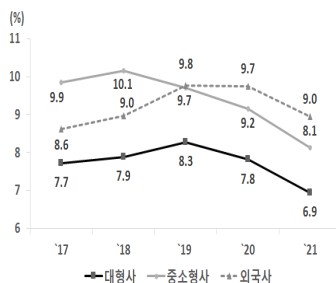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6〉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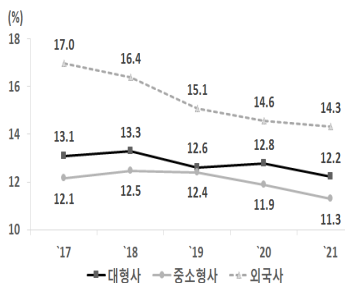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7〉 회사 유형별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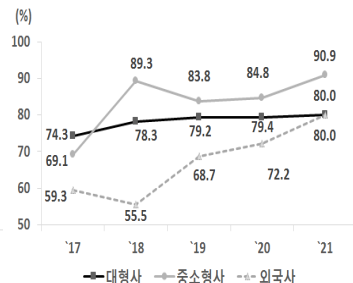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8〉 회사 유형별 사업비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9〉 회사 유형별 보험금 지급률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으로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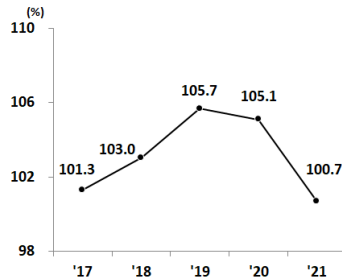
3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손해보험

○ 2021년 손해보험산업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 개선으로 전년 말 대비 4.4%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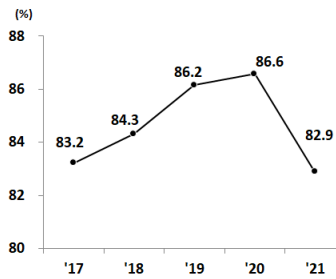
- 손해보험산업 손해율은 전년 대비 3.7%p 하락한 82.9%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일반손해보험 손해율도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임
-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이 크게 개선되어 전년 대비 0.7%p 하락한 17.8%를 나타냄

〈그림 90〉 손해보험 합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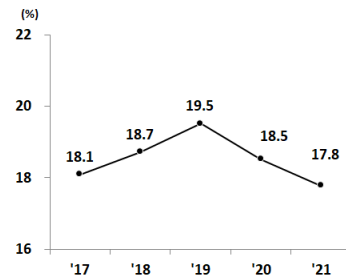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1〉 손해보험 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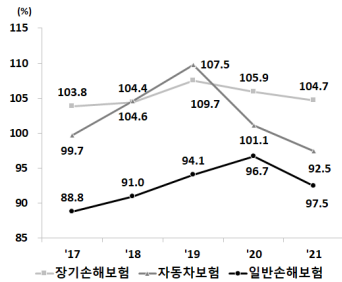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2〉 손해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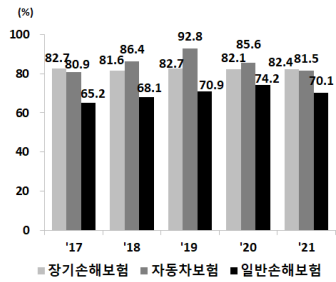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3〉 손해보험 종목별 합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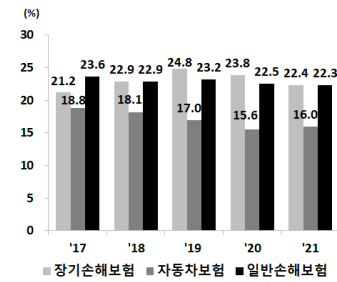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4〉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5〉 손해보험 종목별 사업비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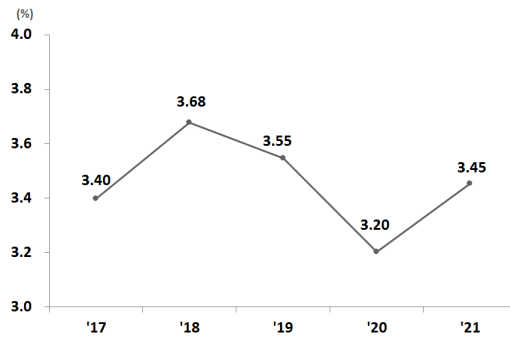
라. 투자영업이익 관련 지표

1) 운용자산이익률

○ 2021년 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생명보험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손해보험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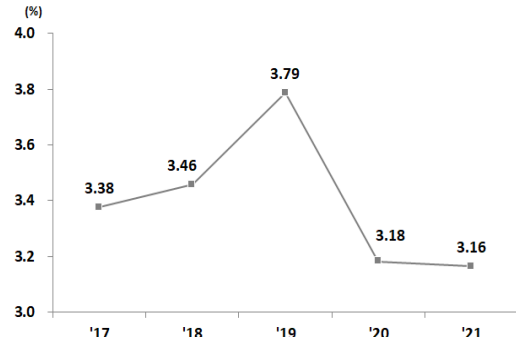
-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배당수익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0.25%p 상승한 3.45%를 기록함
-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년 대비 0.02%p 하락한 3.16%를 나타냄

〈그림 96〉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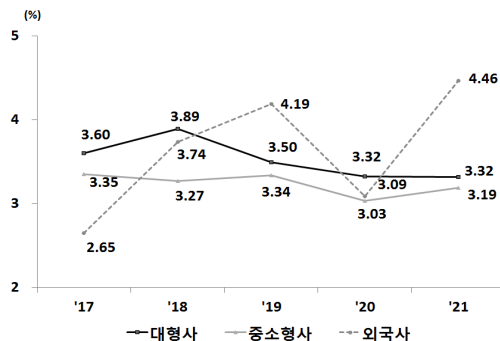
〈그림 97〉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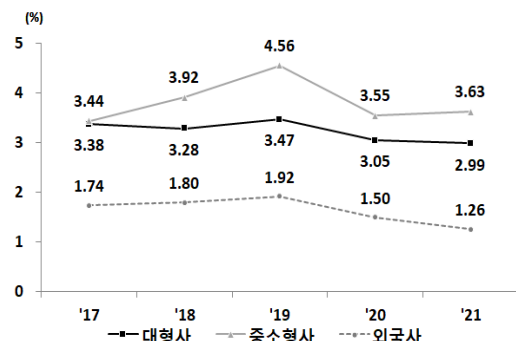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외국사의 운용자산이익률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외국사 운용자산 이익률 하락이 두드러짐

〈그림 9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9〉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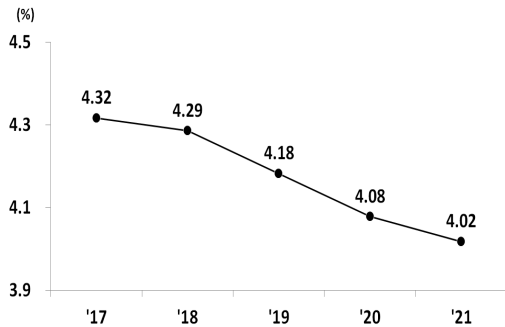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

○ 2021년 생명보험산업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4.02%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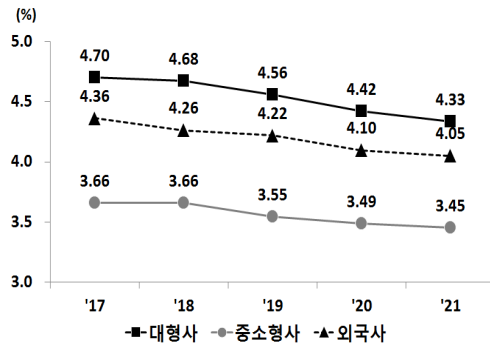
- 2021년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운용자산이익률 3.45%보다 0.57%p 높은 수준임
- 회사 그룹별로 보면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각각 4.33%, 3.45%, 4.05%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소형사가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음

〈그림 100〉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주: 평균 금리 = (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 적용 금리 수준의 중간 값) / 총보험료 적립금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1〉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주: 평균 금리 = (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 적용 금리 수준의 중간 값) / 총보험료 적립금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이익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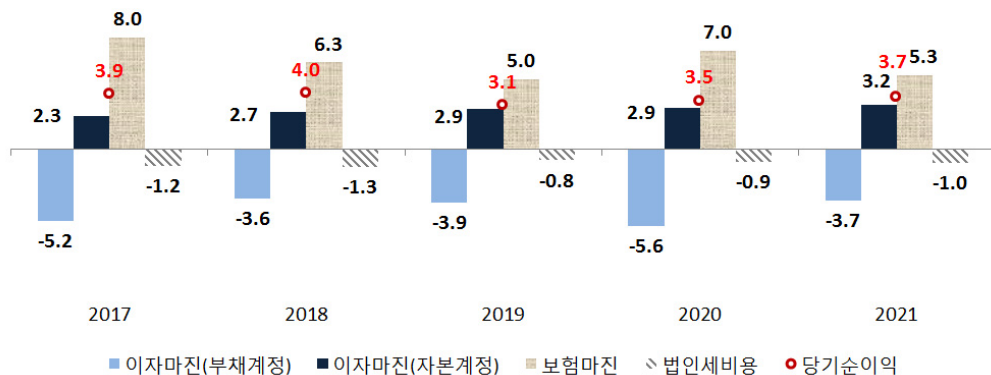
1)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 2021년 생명보험산업의 이자역마진 규모는 자산운용이익률 상승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보험마진도 전년 대비 감소함

- 부채계정 이자마진은 전년 대비 1.9조 원 증가한 -3.7조 원을, 자본계정 이자마진은 전년 대비 자본이 감소하였음에도 0.3조 원 증가한 3.2조 원을 나타냄
- 보험마진은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와 보험금 지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조 원 감소한 5.3조 원을 기록함

〈그림 102〉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단위: 조 원)



- 주: 1) 이자마진(부채계정) = 책임준비금 평균 잔액 × (자산운용이익률 -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2) 이자마진(자본계정) = 자본 평균 잔액 × 자산운용이익률
 3) 보험마진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이자마진(부채계정) - 이자마진(자본계정)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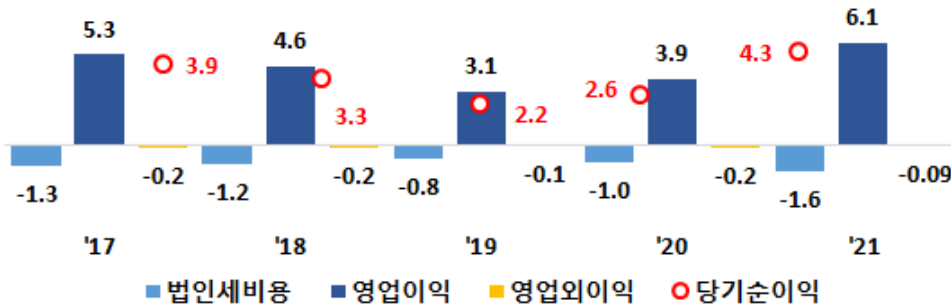
2) 손해보험

가) 당기순이익 구성

- 2021년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손해율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으로 4.3조 원 흑자를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6.1조 원 흑자, 영업외이익은 0.09조 원 적자를 기록함

〈그림 103〉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단위: 조 원)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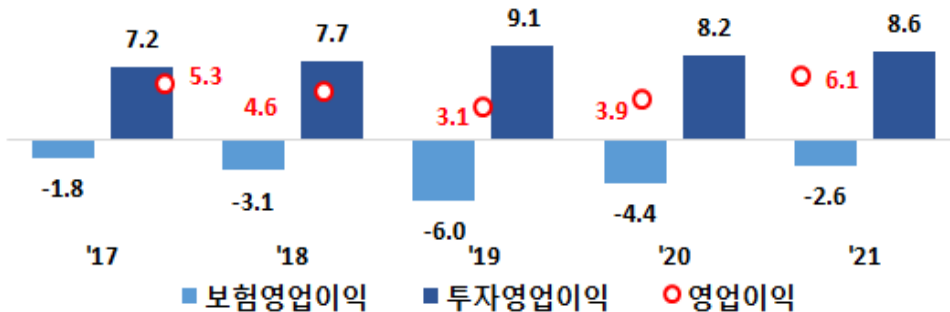
나) 영업이익 구성

- 2021년 손해보험산업 영업이익은 6.1조 원 흑자를 나타냈으며, 보험영업에서는 2.6조 원 적자를, 투자영업에서는 8.6조 원 흑자를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축소되었고, 투자영업이익은 일회성 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그림 104〉 손해보험 영업이익 구성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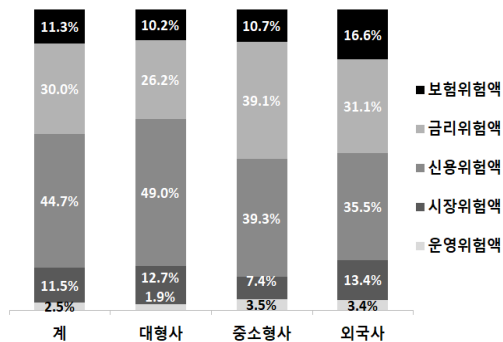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리스크

가.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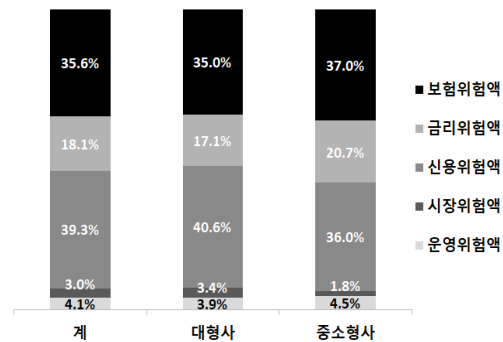
- 2021년 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 모두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금리위험이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위험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의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액 비중이 49.0%로 가장 높은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신용위험액과 금리위험액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대형사의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액 비중이 40.6%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형사는 보험위험액이 37.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10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10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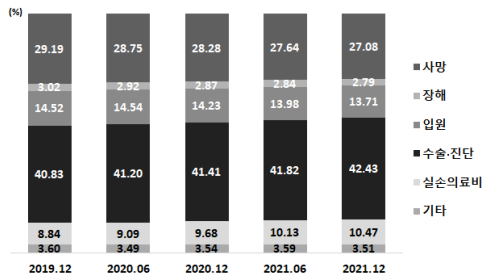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나. 보험리스크

1)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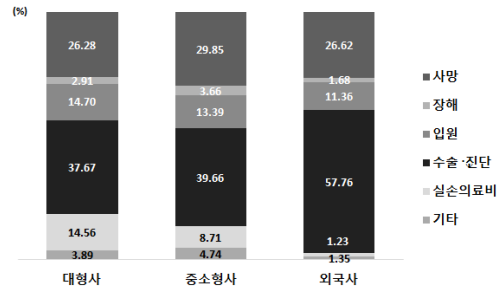
-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저 중 수술·진단,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사망, 장애, 입원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 수술·진단,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61%p, 0.34%p 증가한 반면, 사망, 장애, 입원 보장 비중은 각각 0.56%p, 0.05%p, 0.27%p 감소함
- 외국사의 경우 수술·진단 보장 비중이 57.76%로 큰 편이고, 대형사의 경우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이 14.56%로 큰 편임

〈그림 107〉 보장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사망, 장해, 입원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108〉 회사 유형별 보험보장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사망, 장해, 입원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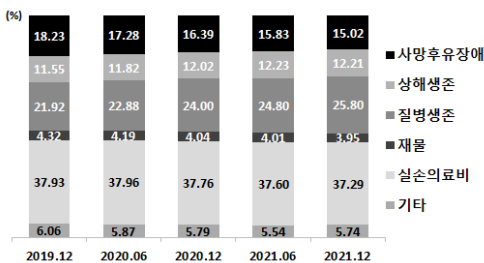
2) 손해보험

가) 장기손해보험

○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저 중 질병생존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사망후유장애, 상해생존, 재물,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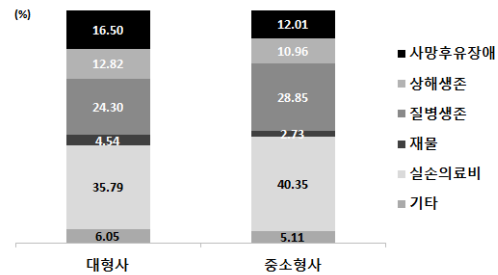
- 질병생존 익스포저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1.00%p 증가하였으나 사망후유장애와 상해생존, 재물, 실손의료비 익스포저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81%p, 0.02%p, 0.06%p, 0.31%p 감소함

〈그림 109〉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 상해생존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0〉 회사유형별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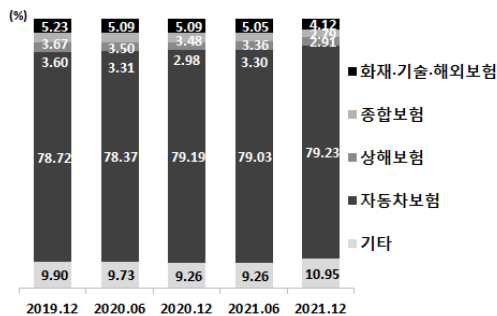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 상해생존 순임
자료: 경영공시

나) 자동차·일반손해보험

○ **[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저]** 2021년 말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증가한 반면, 나머지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은 감소함

-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0.20%p 증가한 반면,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상해보험은 각각 0.93%p, 0.57%p, 0.39%p 감소함
-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익스포저 비중이 직전 반기 대비 26.47%p³³⁾ 크게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일반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4%p 이상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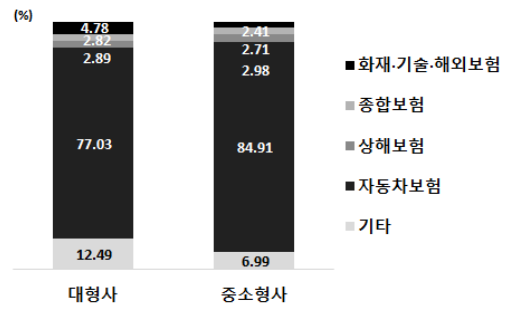
〈그림 111〉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1)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2) 기타에는 해상보험, 근재·책임보험, 기타일반보험, 외국인 보험이 포함됨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2〉 회사 유형별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1)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2) 기타에는 해상보험, 근재·책임보험, 기타일반보험, 외국인 보험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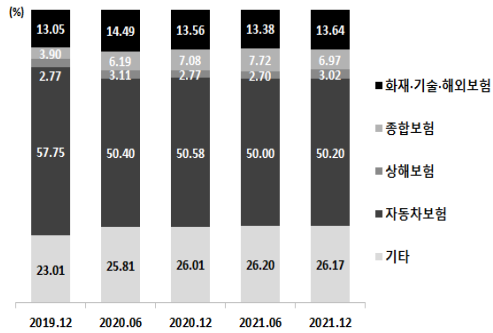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지급준비금위험 익스포저]** 종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손해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증가함

- 종합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0.75%p 감소하였으나 화재·기술·해외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은 각각 0.26%p, 0.32%p, 0.20%p 증가함
- 화재·기술·해외보험의 경우 대형사는 직전 반기 대비 0.63%p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는 1.31%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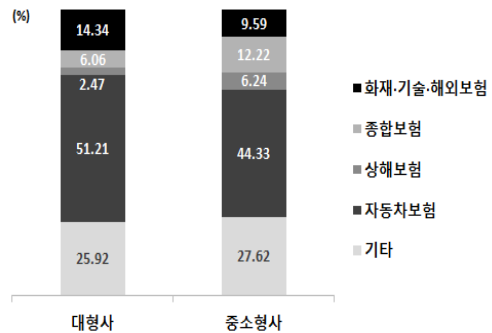
33) 중소형사의 자동차보험 익스포저 비중은 2021년 6월 말 58.44%에서 12월 말 84.91%로 상승함

〈그림 113〉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4〉 회사 유형별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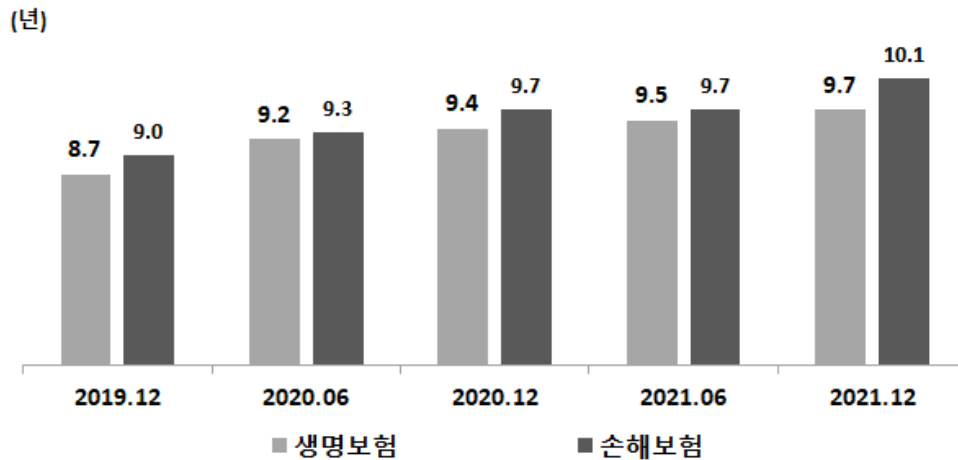
다. 자산리스크

1) 금리위험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산듀레이션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2년, 0.4년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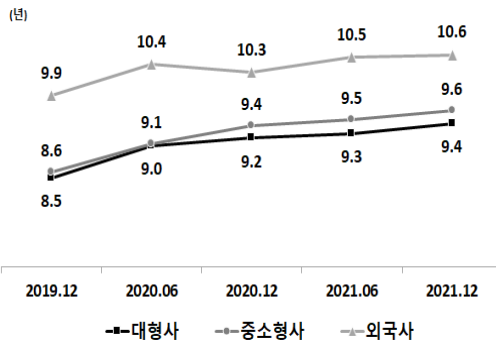
-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5년)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됨

〈그림 115〉 자산듀레이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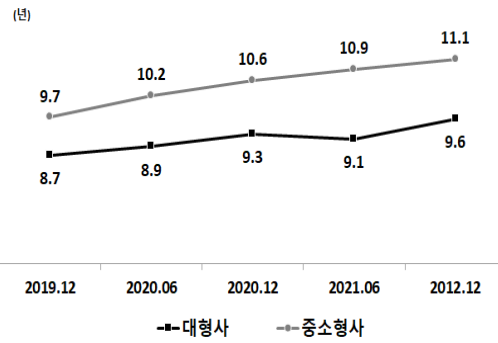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6〉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7〉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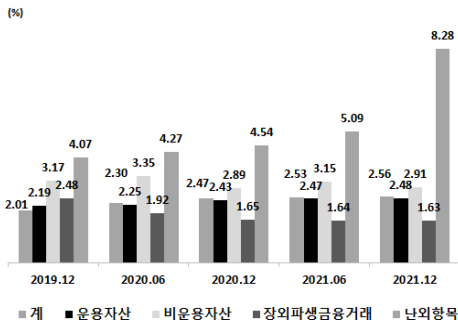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2) 신용위험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신용위험계수는 모두 직전 반기 대비 0.03%p 상승함

- 2021년 12월 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은 6월 말 대비 39.3조 원 증가한 1,075.3조 원을 기록하며 신용위험액 증가를 견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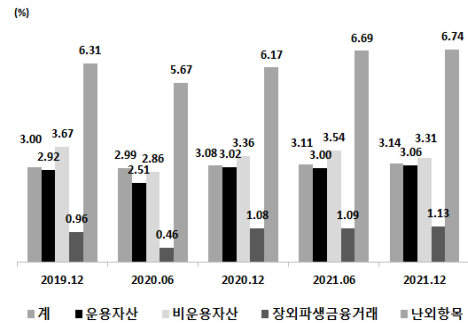
〈그림 118〉 생명보험 신용위험계수



주: 왼쪽부터 계, 운용자산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9〉 손해보험 신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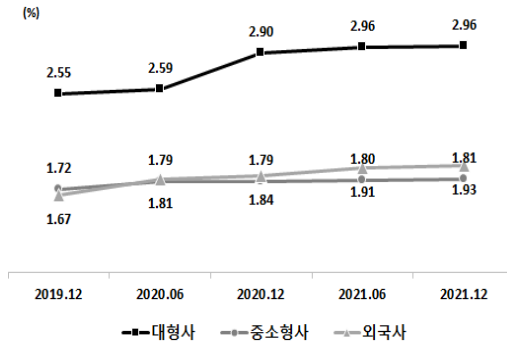
주: 왼쪽부터 계, 운용자산 순임

자료: 경영공시

○ 생명보험의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는 직전 반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확대되었으나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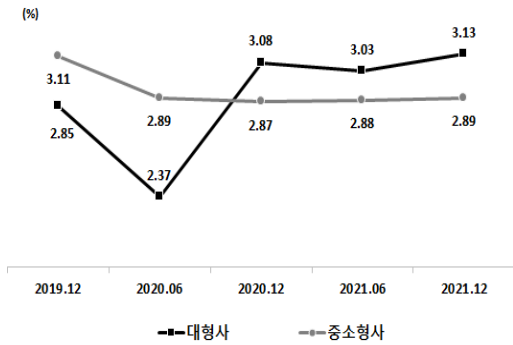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는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01%p, 0.02%p 상승함
- 손해보험 대형사의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는 0.10%p 크게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는 직전 반기 대비 0.01%p 상승함

〈그림 120〉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21〉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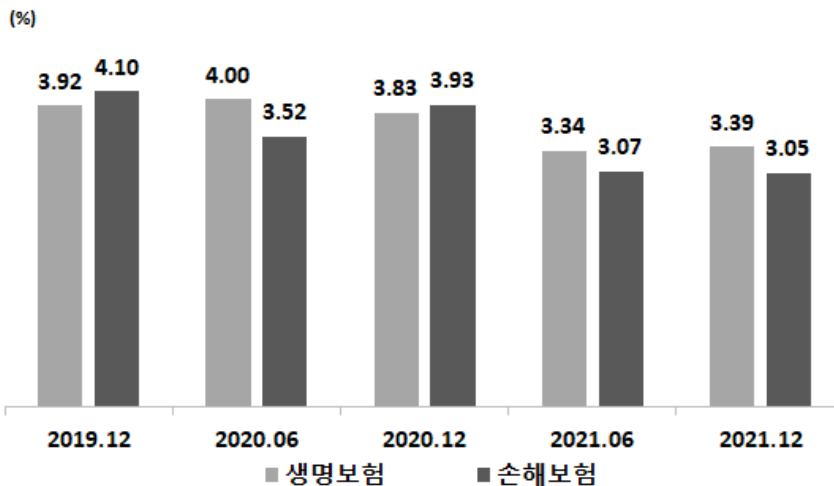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3) 시장위험

○ 생명보험의 시장위험계수는 직전 반기 대비 0.05%p 상승한 반면, 손해보험은 0.02%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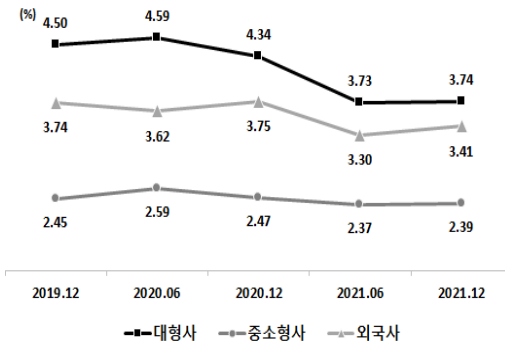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외국사의 시장위험계수가 0.11%p 크게 상승한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중소형사의 시장위험계수가 0.05%p로 하락하며 전체 하락세를 이끔

〈그림 122〉 시장위험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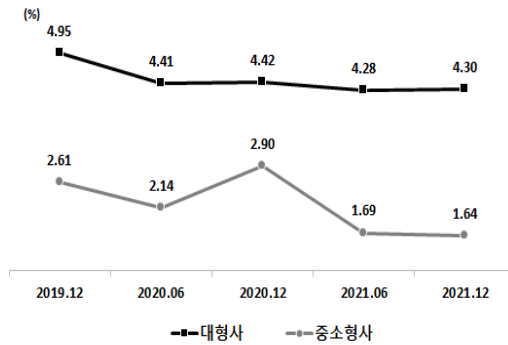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그림 123〉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24〉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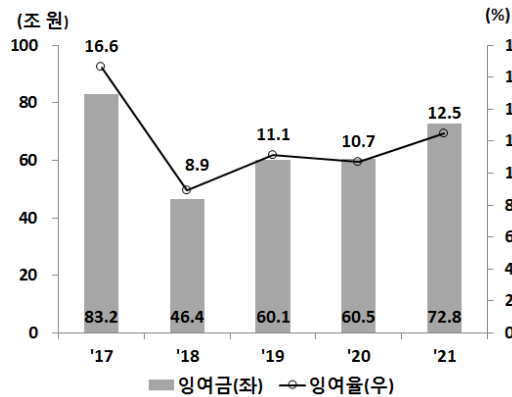
라.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LAT)

○ 2021년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평가대상준비금과 LAT 평가액의 차이)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함

- 2021년 LAT 잉여율은 12.5%로 전년도 10.7%에 비해 1.8%p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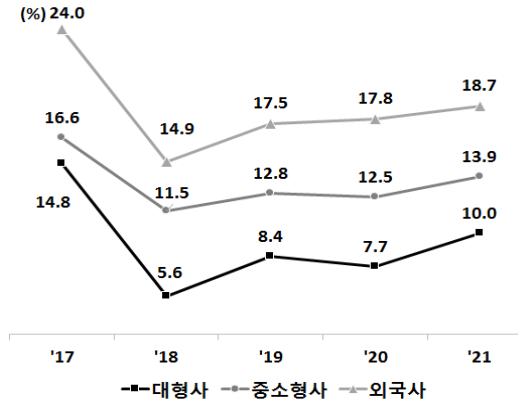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21년 12월 말 대형사의 LAT 잉여율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한 10.0%를 기록하였으며, 중소형사 및 외국사는 13.9%, 18.7%로 각각 전년 대비 1.4%p, 0.9%p 증가함

〈그림 125〉 생명보험회사 LAT 잉여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경영공시

〈그림 126〉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LAT 잉여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경영공시

4. 시장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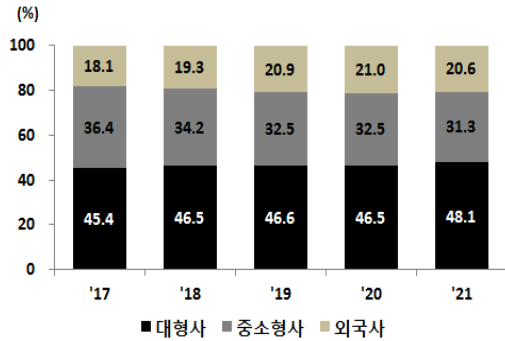
가. 시장점유율

1) 생명보험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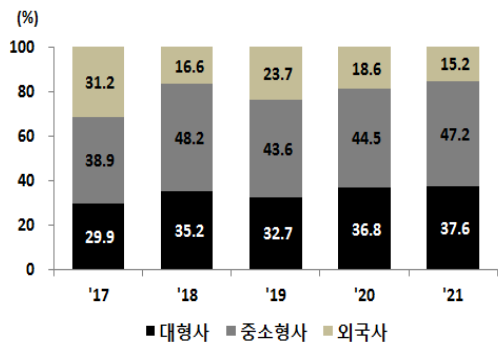
- 2021년 그룹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대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확대된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축소됨
 - 대형사 시장점유율은 저축보험과 연금보험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6%p 증가한 48.1%를 나타냄
 - 중소형사와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31.3%, 20.6%로 각각 전년 대비 1.2%p, 0.4%p 감소함
-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2021년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확대된 반면 대형사 및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축소됨
 - 중소형사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일부 중소형사의 변액보험 신규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2.7%p 증가한 47.2%로 나타남
 - 외국사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저축보험 신규 판매 축소에 따라 전년 대비 3.4%p 감소한 15.2%를 기록하였으며, 대형사는 37.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함
- 2021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³⁴⁾는 전년 대비 46 상승한 1,030,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전년 대비 118 상승한 1,054임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일부 중소형사의 변액보험 판매 확대와 합병의 영향 등으로 상승함

34) 허핀달 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그림 12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그림 12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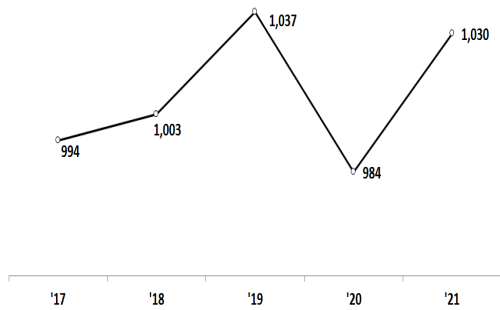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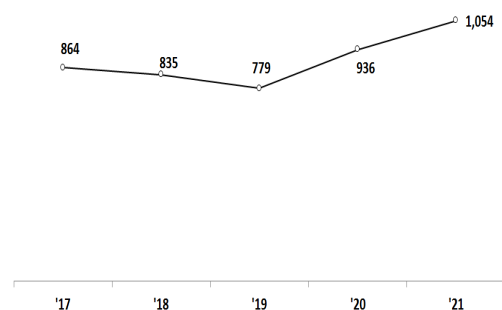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29〉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0〉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 2021년 손해보험산업 그룹별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대형사 점유율이 전년 대비 축소된 반면 중소형사 점유율은 전년 대비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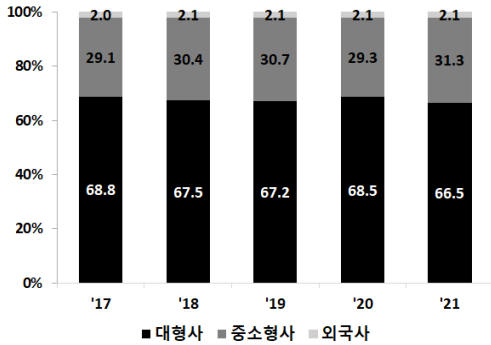
- 대형사 시장점유율은 2020년 68.5%에서 2021년 66.5%로 축소되었고, 중소형사 점유율은 29.3%에서 31.3%로 확대됨

○ 장기손해보험의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2021년 대형사 점유율이 전년 대비 확대됨

- 2021년 대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점유율은 58.1%로, 전년 대비 8.8%p 확대됨
- 같은 기간 중소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점유율은 40.5%로 전년 대비 9.1%p 축소되었으며, 외국사 점유율은 1.3%로 전년 대비 0.2%p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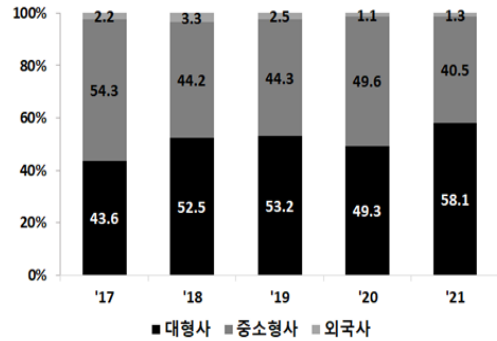
○ 2021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343으로 전년 대비 60 하락하였으며, 장기손해 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282로 전년 대비 154 상승함

〈그림 13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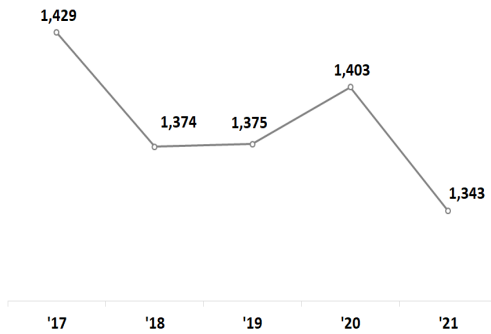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2〉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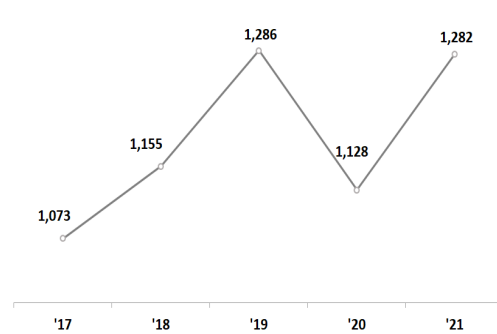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지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4〉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지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판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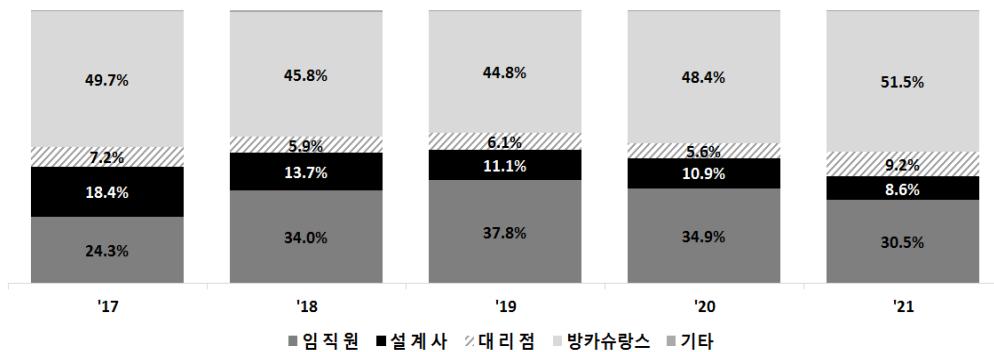
1) 생명보험 판매채널

○ 2021년 방카슈랑스 채널과 대리점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확대된 반면 설계사 채널과 임직원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감소함³⁵⁾

-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연 초 저축보험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3.1%p 증가한 51.5%를 나타냄
- 대리점 채널 비중은 변액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3.6%p 증가한 9.2%임
- 설계사 채널 비중은 보장성보험 판매 감소로 전년 대비 2.3%p 감소한 8.6%를, 임직원 채널 비중은 퇴직연금 신규 판매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4.4%p 감소한 30.5%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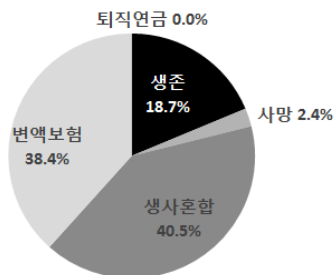
〈그림 135〉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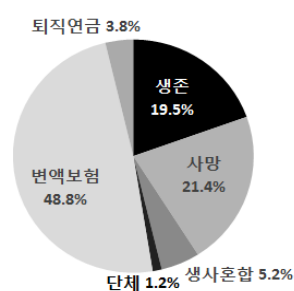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6〉 방카슈랑스 채널 종목별 비중 (2021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7〉 설계사 채널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 (2021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5) 보험회사의 비대면 채널 실적은 임직원 채널 실적에 포함되며, 대리점 채널의 경우도 비대면 채널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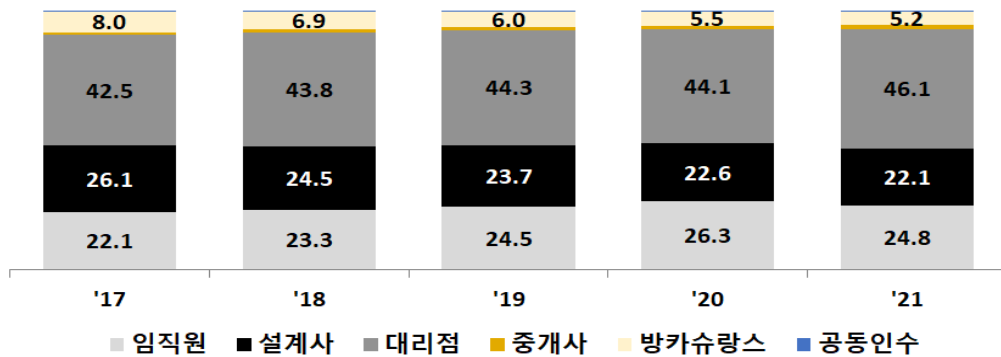
2) 손해보험 판매채널

○ 2021년 손해보험 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의 경우 대리점 채널 비중은 전년 대비 확대된 반면, 설계사 채널 비중은 전년 대비 축소됨

- 대리점 채널 비중은 46.1%로 전년 대비 2.0%p 증가한 반면, 설계사 채널 비중은 개인연금과 자동차보험 판매 둔화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한 22.1%를 나타냄
- 임직원과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1.5%p, 0.3%p 감소한 24.8%, 5.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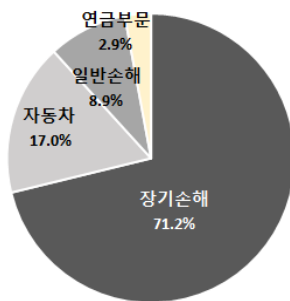
〈그림 138〉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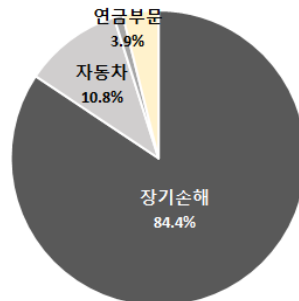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9〉 대리점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 (2021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40〉 설계사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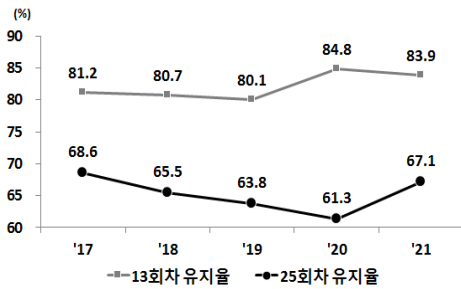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보험계약 관리

○ 2021년 13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은 2020년에 비해 하락한 반면, 손해보험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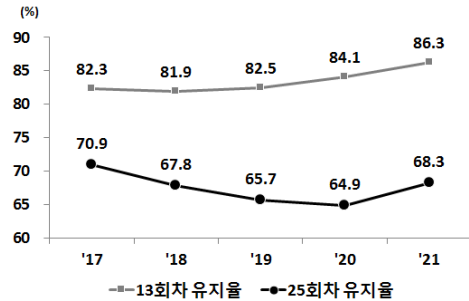
- 2021년 25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도에 비해 상승 전환됨

〈그림 141〉 생명보험 계약유지율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그림 142〉 손해보험 계약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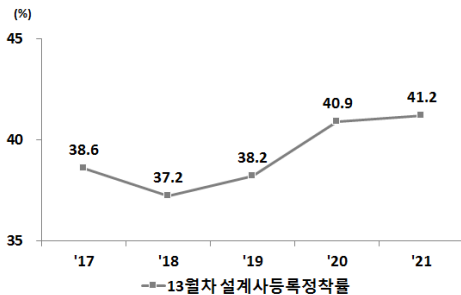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 2021년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생명보험은 전년에 비하여 상승한 반면, 손해보험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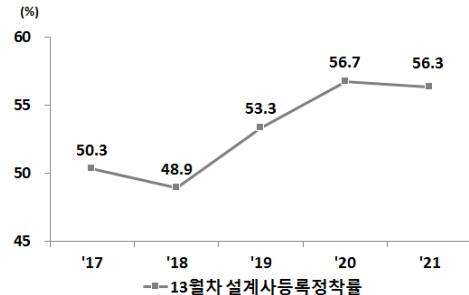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2019년 상승 전환 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은 2019년 상승 전환 후 2021년에는 하락함

〈그림 143〉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정착률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그림 144〉 손해보험 설계사 등록 정착률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보험동향 101호 [2022년 봄호]

발 행 일 2022년 5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문 의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02-3775-9091)
인 쇄 소 경성문화사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